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04　1982년 12월 13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December 1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DEC 13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연방정부 의회에 건의

연금제도 전면 개혁

등록연금구좌(RPA)·소기업종업원 혜택

(오타와)연방정부는 현재의 정부및 민간연금의 개혁안을 마련, 1년간 이를 재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10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캐나다·펜션·플랜(CPP)의 연금인상이 평균 근로자 임금인상의 폭을 따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주가 고용인에게 주는 민간 연금은 여성및 저소득층 노동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이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의 타격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또 가정주부에게도 펜션·플랜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때 연금혜택도 함께 옮겨 갈 수 있는 등록연금구좌(Registered Pension Account)라고 하는 새로운 연금제의 신설을 제의했다.

RPA를 실시하는데는 국가경비가 35억달러 정도 들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제출된 뒤, 막·탈롱드 연방재무상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모니끄·베진 보건상은 "RPA는 직장을 옮길때 마다 고용인이 자기 고유의 보험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된 것으로 경재전망이 어두울때 노후를 걱정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외에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은 가족의 자산으로 취급되어 민간연금이라 할지라도 이혼이나 별거시에는 부부가 나누어 가지도록 한다.

▲연금의 혜택은 가정에서 일하는 연금소유주의 부인에게도 돌아가야 한다.

▲자녀양육을 위해 잠정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은 연금의 혜택을 잃지 않도록 되야 한다.

▲RPA는 RRSP같이 운영되며, RRSP와 같이 세금공제의 혜택이 있도록 한다.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가 RPA를 갖고 옮기도록 할 경우 연금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소기업의 종업원들도 연금제도의 혜택을 입게된다.

▲노인과 독신여성을 위한 일정수입보조계획, 즉 생계수단비를 증액시킨다.

노년연금 늘어날 듯

(오타와)10일 연방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금제 개혁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노년들은 충분한 생계비를 못받고 있음이 지적돼, 현재의 은퇴연금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82년 현재 연방노년보장금(Old Age Security)및, 기타 부수입을 합치면 노인부부는 평균 연 $10,084, 독신자는 $5,695씩 받고 있다.

현재 노인들의 생계비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다.

▲노년수익보장금: 65세 이상자면 누구나 일정금액을 연방정부로 부터 받는다. 82년도는 년 $2,842였다.

▲캐나다 연금계획(CPP): 82년 최고 수혜액은 년 $3,692이다.

▲개인 투자이익금: 주로 부유층 노인에게 해당되지만, 노인생계비가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생계비의 평균 33%를 차지한다.

▲기업주가 지원하는 개인연금: 80년도는 남성노인 310만명, 여성노인 140만명이 이 계획의 혜택을 받았다.

▲가타생계보조비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사진대회 입상작시리즈… ③
2등…「가을의 미녀」
촬영 : 이웅규 모델 : 박은희 원색·칼라

북한외교관 미국비자 억제

「오남철 추행사건」에 강경책

(LA지사) 미국정부는 북한외교관 오남철의 미국여인 추행사건과 관련, 북한 유엔옵서버대표부의 미국내에서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국무성의 젠·베일러스 동남아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오 뉴스브리핑에서 "UN북한대표부가 오남철사건에 대하여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망자로 은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무성은 UN북한대표부의 활동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성성명은 이어 "따라서 미국은 재검토 기간중 유엔북한대표부 외교관의 미입국비자 신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성성명은 이에 앞서 "북한외교관 오남철의 혐의는 명백히 외교관으로서의 공적의무와 무관하므로 그는 미국법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회이트 일병과 가족의 면회를 촉구했다고 밝힌 이 성명은 그러나 오남철사건과 화이트 일병의 월북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8일 오남철사건후 북한외교관 5명이 소련에서 미입국 외교관 비자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고 있으며, 이중 1명이 월북한 화이트 일병이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남철이 외교관 외교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이를 UN법사위에 제기했으며, UN법사위는 곧 이 문제를 검토해 총회에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보도에 따르면 한시해는 북한외교관 5명이 소련에서 미입국 비자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솔랜손에게 말하고, 뉴욕시 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37 Bloor St. W. 533-8593

불법체류자, 사면소식 대환영

강제추행, 고발위협, 이민사기등 당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사면전의 소식은 이곳에 숨어살고있는 교민들은 물론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대환영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영주권이 없어 고용주들로부터 노동착취는 물론 이민국 고발위협등의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이민성자문위원회는 8일 보고서를 통해 금년 7월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것을 건의 했으며, 현재 이민성에서는 이 건의를 진지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사중에 있다.

남미 카이아나출신의 한 여성은 79년부터 토론토에서 숨어 살아오면서 악덕 고용주들에게 강제로 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여권과 현금 2,000달러를 빼앗겼으나 불법이민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고소할 수도 없다고 울먹이었다.

불법체류자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민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마이카에서 온, 자녀와 남편이 있는 이드라니·제일씨는 이민브로커에게 의뢰, 2천달러를 주고 위장결혼했으나 이제는 위장남편을 찾을수 없어 이혼도 못하고, 가족도 불러올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토론토의 이민자문위원 슈크랩·탬키슨씨는 대부분의 불법이민자들은 지금까지 캐나다경제에 "직접·간접으로 공헌해온 공로자"라고 말하면서 아마 "이곳에서 3년이상 체류자로서 자립능력이 있거나 도와줄 친척이 있으면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문제는 한인사회에도 종종 대두되고 있어, 지난 여름 한인불법체류자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려다 적발된 사건이 하나의 예이다.

한인교포사회에서도 불법이민자를 악용,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인사회 뜻있는 인사들은 이들이 애초에 캐나다에 불법체류목적으로 온것은 잘못이지만 이들을 악용, 저임금으로 혹사하는 등 심지어는 이민국 고발까지 가져오는 비도덕자들이 더욱 나쁘다고 말했다.

한반도 군사균형 중요

북태평양 안보유지 위해

(워싱톤9일=연합)한반도의 군사 균형이 기울어지면 전 북태평양의 안보가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무성 토마스·소스미스 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가 9일 말했다.

미하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소스미스차관보는 "남한의 국내외정책은 북한으로 부터의 실질적인 위협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의 한국민에게는 국가안보가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소스미스차관보는 이어 한국의 안정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긴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미국의 안전및 번영과 직결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및 안정의 보존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한남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금주의 행사▶

−1982년 12월13일(월)~19일(일)−

◆15일(수) 제6회「신춘문예」모집 마감
연락처 : 533-2361(Mr. Lee)

◆17일(금)하오7시 경희대동문회 송년파티
곳 : 25 Bowshelm, Missi(826-5118)
연락처 : 421-7438, 924-5155

◆17일(금)하오7시「고려, 연세의 밤」
곳 : Sai Woo 식당 3층(130 Dundas St. W. Tor)
연락처 : 고대 조병역(421-9144), 연대 문영환(623-3846)

◆18일(토)상오11시 한국노년회 송년파티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 Tor)
연락처 : 755-8079

◆18일(토)하오7시 호남향우회 연말잔치
곳 : Ukranian Centre(297 College St.)
※가수 송대관, 권순근악단 출연
연락처 : 651-8835(장 영대)

◆18일(토)하오6시「해병의 밤」
곳 : C.F.B.Toronto(킬×쉐퍼드)
※정영수 태권시범, 김용순무용단, 최영호악단 출연
연락처 : 621-2059(송 기선)

◆18일(토)하오7시 홍익대동문 연말파티
곳 : 이근호회장댁(1107 Islington Ave.)
연락처 : 239-9422(이 근호)

◆18일(토)하오6시 배재동창 송년회
곳 : The Conroy Hotel(3080 Dufferin Ave.)
연락처 : 270-1794(안 창근)

◆18일(토)하오7시30분 볼링협회 성탄·송년회
곳 : Albion Community Centre(1485 알비온×키플링)
※5인조 밴드출연, 댄스파티
연락처 : 622-0224(Mr. 오)

◆19일(일)하오7시 문인협회 정기총회
곳 : 조정대회장댁(3 Hillbeck Cres, Malvern Ont)
연락처 : 425-1246(이 태준)

◆19일(일)하오3시 대각사 남북통일세계평화법회
강사 : 활산 성수화상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 Tor)
연락처 : 463-899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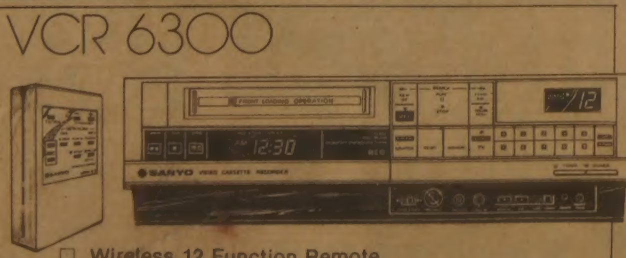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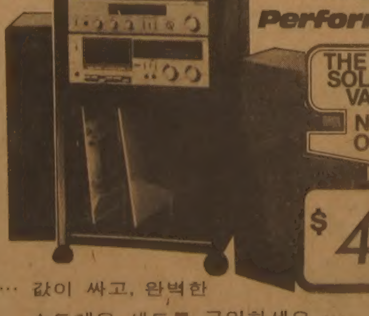
SANYO 년말 대매출

크리스마스
비데오
스페샬

VCR 6300

☐ Wireless 12 Function Remote
☐ 105 Channel Capability (105 채널 녹음가능)
☐ 8 Day - 1 Event Timer
Reg. $ 1395 Spec. $ 995

VCR 4000

☐ 3 Day - 1 Event Programming
☐ Remote Pause/Still Frame
Reg. $899 Spec. $699


Power! Precision! Performance!
THE AUDIO SOLUTION VALUE! NOW ONLY
$ 499.
… 값이 싸고, 완벽한 스트레오 세트를 구입하세요 …
(STAND는 포함안됨)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전 광 채
아카데미 TV. STEREO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 … better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쌀 25파운드에 1센트

LA 한국식품점 출혈경쟁

(LA지사) 마켓간의 세일경쟁이 극에 달해 보탄헬쌀 1포대(25파운드)값이 1센트까지 내려갔다. 오렌지카운티의 일부마켓은 8일까지 1달러99센트하던 보탄헬쌀 1포대의 가격을 9일부터 조건부로 1센트로 팔고있다.

마켓간의 쌀값세일 싸움은 1개월전부터 LA의 식품점들이 보탄쌀 1포대를 3달러99센트로 인하하면서부터 시작 급기야는 실소를 금치 못할 가격인 1센트까지 내려간것. 쌀값세일이 실시되면서 각 마켓들은 갈비, 불고기등도 덩달아 세일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렌지카운티의 경동마켓 경우는 식품류등을 50달러어치이상 산 고객에게는 아예 쌀 1포대를 거저 주고있어 마켓들은「너 죽고 나죽자 식」의 피보기 세일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쌀을 세일하는 식품점들은 ▲사재기나 상인에게는 팔지않으며 ▲기타 세일품목도 양이 제한돼 있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으나 일반소비자에게 무제한으로 쌀을 파는 것인지도 명시돼있지 않으며 사재기하는 사람이나 상인들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묘안도 없어 이같은 쌀값 세일다툼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마켓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지나친 출혈경쟁의 결과라는 인상이 짙다.

보탄쌀의 경우 포대당 5달러50센트는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는 적정선인데 이미 이 적정선이 무너진지는 오래이며 마켓들이 이렇게 상식밖의 세일을 계속할 경우 혼잡만 초래하고 종국에는 상거래질서가 완전 붕괴, 문을 닫는 업소가 속출할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마켓들은 세일경쟁 이유로 불경기를 극복하고 기존고객의 확보및 새고객유도, 그리고 재고정리를 통한 자금유통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업계에 의하면 오렌지카운티에 LA에 있는 큰 마켓들이 분점을 낸다는 소문이 돌자 이같은 세일경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있다.

연봉 83만달러 콜린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뉴욕·양키스 딜

토론토·블루제이스는 뉴욕·양키스의 외야수 데이브·콜린스와 스타팅피처 마이크·모간을 스카웃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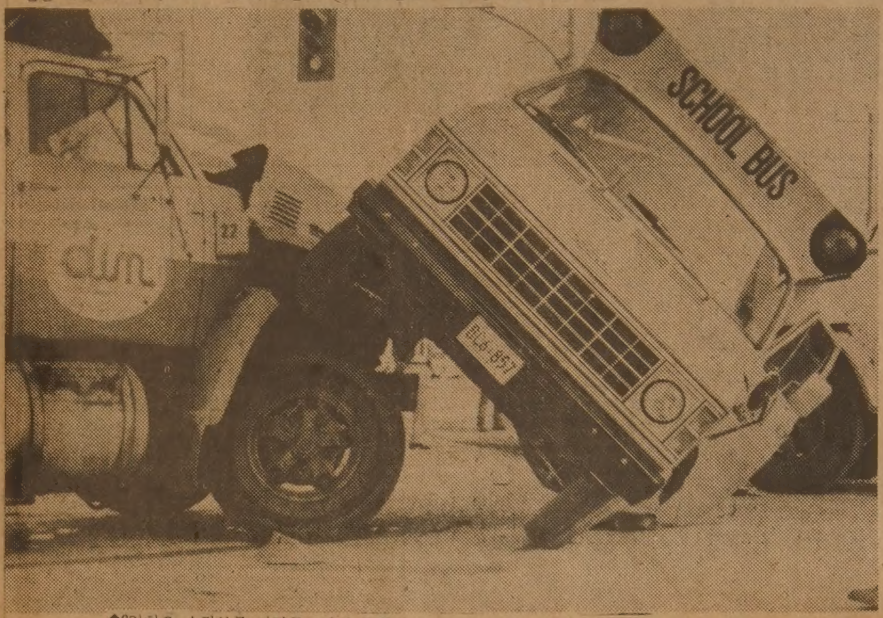
블루제이스는 9일 연봉 83만달러의 콜린스와 모간을 계약하는 대신 릴리프피처 데일·머레이와 톰·도드(마이너리그 외야수)를 양키즈에 보냈다.

금년 30세의 콜린스는 작년도 타율 2할5푼3리로 부진했으나 프로경력 9년의 베테랑이다.

한편 양키스는 외야수 콜린스를 포기하는 대신 프리·에전트 스티브·캠프와 계약 했다.

스티브·캠프의 딜은 연봉110만달러에 5년 계약으로 다른구단에 심한 항의를 받고 있다.

양키스구단주 스타인브레너는 필요한선수가 있으면 돈과 관계없이 계속 스카웃, 윈필드-캠프로 이어지는 외야수들은「원자탄급」의 고가선수들이다. 불티모아등 다른 구단주들은 스타인브레너의 횡포를 막기 위해 뉴욕에 다른구단을 하나더 창설하자고 주장했다. 뉴욕에는 내셔날리그의 메츠와 아메리칸리그의 양키스 두팀이 있다.



◆9일하오 스카브로 마캄로드에서 스쿨버스가 트럭과 3중 충돌, 6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

실내경기장 건설계획

돈힐 근교, 2억달러 투자

토론토 최초의 실내경기장을 짓기 위한 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토론토 건축업자 알버트·채프만씨는 돈힐근교에 2억달라 상당의 실내경기장 건설계획서를 시당국에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경기장은 하이웨이7과 영스트릿근교 시유지 500에이커에 세워지며, 좌석은 8만석이다.

토론토 실내경기장 건설계획은 이외에도 현 익스비션·스타디엄자리 엘파, 마캄근교등 3개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미국에는 10여개의 실내경기장이 있으나, 캐나다에는 내년봄에 밴쿠버에 완성될 슈퍼돔 하나 뿐이다.

몬트리얼은 76년도에 올림픽스타디엄을 실내경기장으로 계획했으나, 예산과 운영 경비관계로 취소했다.

토론토는 작년부터 이 건설계획이 추진돼, 현재 부지와 마스터프랜을 모색중에 있다.

설계및 공사기간 4~5년을 계산하면 토론토에서는 80년대말에나 가능하다.

스쿨뻐스 트럭에 끼어

어린이 16명 부상

9일오후 스쿨·버스가 스카보로 대로에서 두대의 대형 트럭에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 어린이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중 6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가료중이다.

메트로경찰에 의하면 스카보로의 4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오후 4시경 마캄·로드 밀러애비뉴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다가 마주오던 45피드의 대형 트레이너와 부딪힌 후, 또다른 트럭과 충돌, 샌드위치가 되었다.

스쿨·버스운전사 레나·페이타(40)씨는 좌회전을 불안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론토종합병원(Toronto General Hospital)에 근무하는 제임스·토아킨박사가 출근길에 마침 이 광경을 보고 달려가 부상어린이들을 치료했다.

출동한 경찰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부상 어린이들을 버스에서 꺼내 인근식당으로 옮겼으며, 앰브란스차가 도착할때 까지 토아킨박사가 중상자에게 응급치료를 했다.

부상어린이들은 스카보로·센테나리와 스카보로종합병원에 분산, 입원되었다.

일반사건 신고

967-2222로

메트로·토론토경찰은 긴급한 사건이 아닐 경우 경찰에 신고나 일반문의는 전화 911이 아닌 967-2222로 하도록 전 시민을 상대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메트로경찰이 이같은 캠페인을 벌이게 된 까닭은 911사용도가 너무 높아 실제 긴급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911을 돌려 긴급사건을 신고할때는 주소와 이름 긴급사건의 상태를 밝혀야하며 경찰은 필요할 경우 앰블런스, 소방관을 동원시킨다.

파킹문제, 시끄러운 이웃, 도난등의 신고는 911보다는 967-2222로 해야한다.

김목사 부임예배

중앙한인연합교회

중앙한인연합교회(353 Sherbourne St. Tor.)의 김택규목사 부임 환영예배가 12일 낮12시30분 열린다.

김목사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의 달라스한인연합교회에서 8년간 시무했었다.

서머나교회 이름바꿔

「한인감리교회」로

토론토의 서머나교회(목사 박준하)는 이번에 교회명을 토론토한인감리교회(Toronto Korean Methodist Church,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로 바꾸었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黃의 사나이

金聖鍾作

<128>

출발 ⑨

시체 치우고난뒤 창은 웡에게 "결혼하자"

그는 잠시 시체를 내려다보고있다가 욕실로 들어가 타월을 가지고 나왔다. 그것으로 자신의 손이 닿은 곳을 깨끗이 닦았다. 이윽고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엘리베이터속에서 그는 치과의사 생활도 이것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분노로 가슴이 떨릴지경이었다. 자신의 생활을 파괴한 자들에대한 증오로 가슴이 터질것같았다.

그러나 병원에 들어섰을때 그는 이미 냉정할이만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느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환자들을 진료했다.

1시반이되었을때 웡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점심식사 아직 안하셨죠?』

『응, 아직 안했어.』

『아, 배고파요. 그쪽으로 나갈께 점심 사줘요.』

『그러지.』

『어머, 무슨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기분 안 좋으세요?』

『아 아니…』

『그만둘까요?』

『아니야. 이쪽으로 와. 코피숍에서 만나.』

10분후에 그는 웡을 데리고 호텔안에있는 일식집으로 들어갔다.

웡은 기름기가 많은 중국음식보다는 일식을 좋아했다.

창은 식욕이 전혀 없었지만 그녀의 기분에 맞추느라고 먹는 체했다.

『이봐, 웡…』

그는 갑자기 절망적인 기분에사로 잡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새우튀김을 입으로가져가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우리 결혼하는게 어떨까?』

그녀는 눈을 깜박거렸다. 그러다가 새우를 입속에 집어넣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전 아무 것도 모르는데요.』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웃었다.

『그런게 문제야?』

『아뇨.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궁금해요. 지금까지 왜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없었기때문이지.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는건 알고있어.』

『아니에요. 그런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 나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고맙군.』

『제가 거절하면 저를 안만나시겠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

『가족은 아무도 안 계세요?』

『나 혼자야. 난 여기를 곧 떠날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의 말뒤에 숨은 뜻을 캐려는듯 그녀는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았다.

『왜? 왜 떠나시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지.』

『병원은 어떻게 하구요?』

『모두 처분 할거야.』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은 몰라.』

朴 男 그림

크리스마스 화초 스페샬 세일

과일·채소·화초 도매상

	터미날	스페샬
■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빨간꽃	~~3.25~~	2.75
■ 국화(6인치 큰 싸이즈)	~~3.00~~	2.50
■ 각종 cut Flower (터미날 가격보다 20% off)		

※ 배달은 주문가격에 관계없이(총전은 $150이상) 배달합니다.

모든 화초·꽃 종류는 온타리오·터미날 보다 20% off 해서 팔고있읍니다.

BROADWAY FRUIT MARKET (칼로우X제랄드)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덕렬

더 푸르고, 더 싱싱한 맛을 찾으세요!!

예술의 경지

유 희 자

◆유희자 박사

10여년전 필자가 미국에서 공부할때, 이웃 도시에 현대 음악작곡가로서 거장인 스트라빈스키가 와서 그의 작품 "페트로슈가"를 지휘한다고 해서, 몇 학생들이 210여마일의 자동차 원정을 간적이 있었다. 스트라빈스키는 1910년경 파리에서 "불새"라는 작품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후 현대음악의 방향을 이끌고 나간 작곡가중의 가장 독특한 작곡가로 알려진 분이다. 미술분야에서 비교하면 피카소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작곡가인 것이다.

80여세나 되신 분이 자기 작품을 지휘하기 위하여 미국 서북부의 한 도시에 오신다고 하니 두번 다시 갖기 힘든 귀한 기회인 것이다. 시간이 되자 이 고령의 작곡가가 나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모두 왼쪽 무대를 주시하고 있을 때, 허리가 구부정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무대중앙으로 걸어나오기 시작하였다. 그곳에 모인 3000여 관중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일어나 우뢰와 같은 박수로서 이 20세기의 위대한 작곡가를 맞아드렸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 감격한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치는 것은 보아왔지만 음악회를 하기도 전에 이런 답례를 해 주는것은 처음 보았다. 누가 시킨것도 아닌데 그곳에 모인 청중 각자가 마음속에 진실로 존경의 뜻을 보내는 듯에서 보여주는 감격적인 답례였던 것이다. 그 답례는 스트라빈스키가 일생동안 닦아오고, 가다듬고, 또 만지고, 갈고 닦고 한, 그 긴 예술활동이 쌓아놓은 공헌에 대한 진지한 존경의 답례를 표현한 것이리라.

지난 12월4일에 있은 한인합창단의 메시야 공연을 보고 필자가 지난날의 이런 경험을 되살리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리라. 토론토 한국이민 역사상, 캐나다의 중견급 이상의 단체들이 연주하는 매씨홀에 150여명이나 되는 합창단과 함께 어려운 메시야곡을 무난히 연주할수 있게끔 쌓아올린 노력과 예술성을 발휘하신 박재훈 박사가 비교되기 때문이다. 이날의 연주는 박박사님이 60평생 쌓으신 많은 예술활동의 걸음이 총 밑받침이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연주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가 된것이다. 교회 성가대에서나 노래 부르는 경험정도 밖에 없는 합창대원들을 이만큼 훈련시켰을때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땀흘린 노력이 있었을까를 감히 짐작이 가기 때문에 이 음악회는 더욱 마음을 풍뿔케하는 감격을 주는 행사인 것이었다. 중간중간에 합창단원들은 어려운 부분을 테크닉적으로 다 소화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곳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단원들은 영혼이 들어간 노래들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음악 표현의 궁극적 목표는 테크닉의 전달이 아니고, 감동과 내용과 그 진지한 의미를 관중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그 많은 가사를 모두 확신을 가지고 불러주었으며 확신이 있을 때에만 듣는 사람에게 가사전달이 분명하고 진정한 의미의 멧세지를 남기는 연주가 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표현의 결과는 평소 연습할때, 지휘자의 세밀한 지도와 훈련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것임을 생각할때 박박사님의 60평생 쌓아올린 걸음의 진가를 다시 느끼게 해준다.

합창은 영광, 할렐루야, 아멘등에서 감동할만한 연주를 하였으며, 특히 할렐루야는 단원 모두가 악보를 외워서 노래함으로써 지휘자와 완전일치가 된 연주를 해주었다. 이로써 관례적으로 모두 일어선 청중들에게 보다 뜻깊은 연주를 보여준 것이다.

소프라노 이주연씨는 테크닉의 완숙은 물론 마음에 깊이 느끼는 개성이 있는 해석을 하여 주었으며, 메조쏘프라노 양경자씨도 부드러운 알토음성의 아름다움을 과시하였다. 테너 조영호씨는 박력있는 음성과 표현으로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바리톤 신경옥씨 또한 오랜 공부와 풍부한 경험으로만 보여줄수 있는 탁월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마지막 독창인 "나팔이 울리리라"에서는 이날 저녁 모든 연주의 성공에 개가를 울리는듯, 세심한 해석과 신념을 가진, 오래 남을만한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이 네분 의 독창자들은 한국인으로서는 특급에 속할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모두 캐나다 어느 무대에 서도 손색이 없을 훌륭한 노래를 들려주었다.

오케스트라도 전문가적인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어, 짜임새 있는 뒷받침을 해 준것은, 그분들을 고용하느라고 막대한 경비가 들었다해도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휘자가 아무리 좋은 연주를 하고 싶어도 자신이 없는 단원들을 끌고 나가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재료가 좋아야 지휘자가 원하는대로 좋은 조작품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이야기다. 험이 있었다면 첫 서주곡인 심포니아와 간주곡인 목가에서 바로크 연주 스타일의 근본적인 해석이 뒷받침이 된 확신이 있는 연주가 못된 점이다.

필자는 이번 교향악단 전원이 단체계약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연주(하프시코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중석에서 감상할수 있는 기회가 된것같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글도 쓸수있게 된 것이다.

어느 분은 매년 왜 똑같은 것을 연주하는가도 반문하겠지만 그만큼 더 들으면 들을수록 그곡의 진가를 이해하게 되고, 더욱 듣는 기쁨을 가질수 있게 될 것이다. 케네디언들은 메시야공연을 씽얼롱 스타일로 하는때가 있다. 그것은 청중들이 각 파트별로 앉아서 모두가 다 합창단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가? 우리도 몇년후에는 청중들이 박박사님지휘 아래 다같이 노래부를수 있는 메시야공연이 된다면 그 얼마나 감격스런 연주이겠는가? 해마다 들어도 더 감격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메시야는 불면의 작품으로 꼽히는 것이다. 박박사님과 같이 노련한 합창지휘자와 이번 같이 특등급의 독창자들이 한데 모이고, 열과 성의를 다한 합창단원과 전문가로만 모여진 교향악단의 반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은, 한국인의 연주로서는 한국과 북미를 통 털어서도 첫손을 꼽을 만한 연주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휘자를 비롯해 한인합창단원및 이사진, 후원진 모두에게 부라보를 보내며 서 내년의 공연을 기대한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빅버드의 중공여행−TV어린이프로그램「세사미스트릿」에 출연중인 빅버드와 개 버릴리가 중국의 전설적인 봉황새의 이야기를 캐는「중국의 큰 새」프로그램을 위해 만리장성을 방문, 새로 만난 꼬마친구 샤오·푸양과 다정히 걷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과 중공의 첫 공동제작물.

밍크
·밍크·폭스·세블·라쿤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록키모피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性教育 모두 말합시다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나는 00세인데 성의빈도가 아무래도 남들보다 떨어지는것 같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아내에게 부끄러운것같고 영자신이 없는데 무슨방법이 없겠는가』 또는 『나는 중2때부터 자위행위를하고 지내왔다. 그런데 몇년이지난 지금은 자위행위가 잘되지않아 걱정이다. 몸의 다른 이상은 없는것같다. 어찌해야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은 본인들 개개인으로는 어쩌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것이다.

그러나 질문을받는 입장에서는 또가장 흔한질문들인것이다. 남성들이야 성 또는 정력이 강하다는것 같아 부끄러운것이 없을것이고 본인이 이런일에 자

性의 強度는 비교하지말라

신이있다고할때 이처럼 다행 일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기야 약하다는 것 보다야 강하다는편이 좋은 것은 사실일게다.

여성들은 모두 미스코리아가되고싶어 한다. 아니면 미모를 자랑하는여배우나 탤런트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쌍꺼풀을 만들고 코를 높이고 열심히 미장원, 양장점출입을 한다.

여성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이라면 성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그런데 과연 그래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모든 남성의 성이 강해야하고 왜 모든 여성은 여배우 같이 아름다와야 하는 것인가. 강도나 아름다움의 기준은 그 기준이 항상같지않다.

역사적으로도 다르거니와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기타 여러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세계가 하나같이 되어 왕래가 잦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결코 그 기준은 같을수가 없는것이다. 그뿐아니라 그기준은 어쩌면 각기 자기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남성들의 성욕구나 행위의 빈도가 누구와 비교되어야 할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즐기면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내 수준에 맞게 단련이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 모습이 열이면 열 다 다르듯이 성의 빈도 역시 다 다른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현대가 경쟁의 시대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생활은 개개인에게 특색이 있는 것이다. 때로 비슷할 수는 있으나 꼭 같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일을 비교를 하는데서 점점 자신이 없어져 희망과는 달리 역작용을 나타낼수도 있다. 나는 내 기준대로 사는것이 당연하다.

왜 누구와 비교를하며 고민을 해야한단 말인가. 그런 고민이 아니고도 우리네 살림살이에는 고민거리가 적지 않은 데 말이다.

자신을 갖는 것이다. 자위행위를 몇년이고 계속하다보면 권태롭고 시들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걱정할것이 못된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왜 외모나 몸매에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교양이 있어야하고, 지적 아름다움이 있어야하고, 마음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더욱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다.

용산고등학교
연 말 파 티

동문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어느듯 접어든것 같읍니다.
동문 여러분을 만나 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다채로운 순서와 푸짐한 상품도 마련되었사오니 부부동반하시어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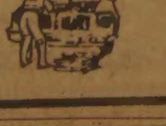
때 : 1982년12월17일(금) 오후 7시.
곳 : Hotel Triumph Sheraton (Hwy401×Keele 북쪽) Victoria Room
연락처 : 신현수 222−8237
표한구 745−9995
이창명 299−4787
회 비 : 싱글 $30. 커플 $50.

용산고등학교
동문회 회장 신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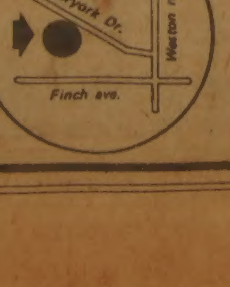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사고차량 완전수리, 패인팅 (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헌



홍익 동문
연말파티 초대

와우동산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거운 해를 보내며,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와우동산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쉬움을 풀고자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하오니 부디 부부동반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눕시다.

때 : 1982년12월18일(토) 오후7시부터
곳 : 회장자택 1107 Islington Ave.
주차장 1100 Islington Ave. Westown shopping center 내
준 비 : 본회의 임원들이 저녁과 음료일체를 준비합니다
연락처 : 회 장 이근호 239−9422
부회장 여정웅 242−5194
부회장 황수혜자 626−8455
총 무 김홍수 255−5269

홍익대학 동문회
회장 이 근 호

交通요금 15일부터 引上

鐵道·시외·高速버스·航空料포함

地下鐵기본區間 초과료도, 서울·釜山 특급6천원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연안여객선및 국내항공요금등 각종 교통요금이 오는 15일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인상된 교통요금내용은 철도가 여객요금 4.5%, 화물 6.6%로 현행요금보다 평균 5.4%인상됐고, 고속버스 8.4%, 직행버스 3.4%, 시외버스 9.4%가 각각 인상됐다.

또 연안여객선 여객요금은 9.4%, 소형 화물선요금은 8.8%, 대형 화물선요금은 9.3%씩 각각 올랐으며 국내항공요금도 여객 3.9%, 화물 3.6%씩이 각각 인상됐다.

이번 교통요금인상에서 택시와 시내버스, 화물자동차는 제외됐다.

또 수도권전철요금은 올리지 않고 1백10원으로 묶였으나 기본거리 8㎞를 초과할때는 5%씩 인상분을 적용, 서울역―仁川간 요금이 3백60원에서 3백70원으로, 서울역―水原간 요금이 3백90원에서 4백원으로 각각 10원씩 올랐다.

철도요금인상으로 서울―釜山간새마을호요금은현행 1만3천6백원에서 1만4천3백원으로 7백원이 인상됐으며 우등이 8천4백원, 특급이 6천원으로 올랐다. 또 서울―光州간 새마을호요금은 1만1천9백원, 우등이 7천원, 특급은 5천원이 됐다.

또 화물은 3등급을 기준, 톤당50㎞운임이 6백66원에서 7백8원으로 올랐다.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釜山구간 5천7백80원으로 4백40원이 올랐고, 서울―光州구간은 4천3백원이 됐다.

또 항공요금은 서울―釜山간이 2만5천6백원, 서울―濟州간이 3만2천7백원으로 올랐고, 연안여객선의 경우 釜山―濟州간 카페리요금은 2등기준 1만3천6백30원, 일반여객선은 6천3백40원이 됐으며, 釜山―麗水간 엔젤호 요금은 1만1천6백원, 浦項―울릉간 쾌속선은 3등기준 7천4백90원으로 올랐다.

교통부는 이번 교통요금인상이 지난해 6월10일 요금을 인상한 이래 유가 인건비 일반관리비 인상등으로 원가압박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요금은 지난 7월 5%를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들어 2번에 걸쳐 10%인상한 셈이며 이같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25%의적자요인을 안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요금 인상내용 ( )안은 현행

서울기점	水原	大田	東大邱	釜山	全州	光州	麗水
새마을		5,400 (5,100)	10,500 (10,000)	14,300 (13,600)	9,000 (8,600)	11,900 (11,300)	
우등	1,900 (1,800)	3,100 (3,000)	6,200 (5,900)	8,400 (8,000)	5,300 (5,000)	7,000 (6,600)	8,500 (8,100)
특급	1,400 (1,300)	2,300 (2,100)	4,400 (4,200)	6,000 (5,700)	3,800 (3,600)	5,000 (4,800)	6,100 (5,800)
보통	280 (270)	1,130 (1,070)	2,210 (2,110)	3,000 (2,860)	1,900 (1,810)	2,500 (2,380)	3,060 (2,920)

◇고속버스및항공요금내용 ( )안은 현행

	고속버스	항공요금
서울―釜山	5,780(5,340)	25,600(24,600)
서울―大邱	4,000(3,690)	19,100(18,400)
서울―大田	2,120(1,960)	
서울―光州	4,300(3,960)	20,000(19,300)
서울―濟州		32,700(31,500)

司法試驗·행정·外務·기술高試에 교수評價 30% 반영

資質등 全人的평가 法令개정 내년부터

정부는 내년부터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기술高試에 30%의 교수評價추천성적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年內에 司法試驗令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개정、시험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현재의 사법시험이나 행정、외무、기술고시 제도를 바꾸어 시험성적 70%에 교수추천성적 30%를 반영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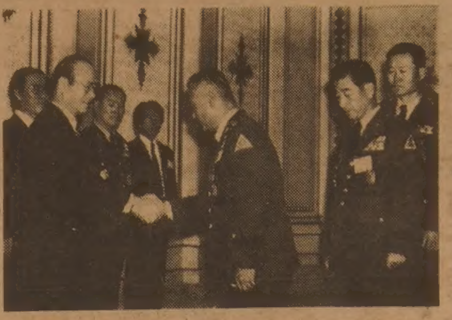
총무처의 한관계자는 8일 『내년부터 시험성적과 교수추천성적을 7對3의 비율로 반영할 방침아래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중』이라고 밝히고 『사법부에선 아직 공식회보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찬성의사를 표시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관및 공무원 임용시험에 교수추천 성적을 반영키로 한데대해 『暗記위주의 필기시험 만으로는 지식평가만 가능할뿐 인격평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질 소양 인격등 全人的인 평가를 위해선 제도보완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사법시험 개정령案에 의하면 2차시험에는 定員의 1백30%(현재 사법시험합격자 정원은 3백명이기 때문에 3백90명)를 합격시키고 이들의 시험성적을 70%로 환산한뒤 교수추천성적 30%를 이에 加算, 최종순위를조정해정원대로3백명만합격시키도록되어있다.

총무처 관계자는 교수추천성적의 평가기준이나 점수환산방법에 대해선 현재 문교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교수추천평가제도는 相對평가제가 아닌 絶對평가제이기 때문에 재학시절에 사고등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추천성적으로 큰영향은 받지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교부는 지난2월 지도교수가 대학1학년부터 4학년까지 每학년말에 ▲판단력 ▲창의력 ▲지도력 ▲책임감 ▲인간관계 ▲국가관등 6개항목에 관해 秀優美良可등 5단계로 절대평가토록하는 교수의 「학생추천서」를 대학측에 제시한바 있어 이를 6개항목이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秀가 5점 優가 4점 美가 3점 良이 2점 可가 1점으로 채점될것으로 알려졌다.



"冬季·야간戰鬪훈련강화를" 全大統領、全軍주요지휘관에 당부

全斗煥대통령은 8일 하오 청와대에서 이날상오 각軍별로 주요지휘관회의를 가진 尹誠敏국방장관 金潤鎬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등 1백11명의 全軍주요지휘관으로부터 신고를받고 이들을위해 다과를 베풀었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각군지휘관들은 3軍이 긴밀히 협조해 어떠한 상황에도 훌륭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평시에 前後方과 해안등 모든 지역의 방위태세를 확고히다지고 內實있는 實戰훈련과 軍의 정예화훈련을 강화해나가야한다』고 말하고 『특히 초급지휘관들의 부대지휘능력을 배양시켜 실질적인 戰力을 부단히 향상시켜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年末年始를 맞아 有事時에대비한 각군의 가족의 三人의식향양및 의식개혁에 각별한노력을 기울일 것, 軍의 예산은 생산적으로 집행하고 절약해서 쓰도록 할 것등을 당부했다.

어제 各軍 주요지휘관會議 새해 業務실천방향등 論議

육·해·공군 주요지휘관회의가 8일상오 각군별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1년간 각군이벌인 전력증강에대한 성과분석과 재해의 업무실천방향이 논의되었다.

美、B52G機 實戰배치

크루즈미사일로 무장한 16臺

【워싱턴AP聯合】核탄두 순항(크루즈)미사일로무장한 B52G폭격기 1개중대 16대가 오는16일부터 최초로 실전대비태세에 들어간다고 美공군이 7일 발표했다.

공군은 16대의 B52G폭격기가 뉴욕주의 그리피스공군기지에 1차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기지에 배치될 B52G폭격기는 대당 사정2천4백㎞의 장거리미사일 12개를 날개밑에 적재할수 있으며 B52G폭격기에 적재된 순항미사일은 고도의 정확성을 가지고있고 소련영토깊숙한곳의 목표물을 강타할 수 있다.

美공군은 궁극적으로 2백대의 B52G폭격기에 소련영토안의 목표물을 공격하기위해 고안된 순항미사일을 무장시킬 계획이며 시간당 8백㎞를 나는 이 순항미사일을 4천基이상 구입할 계획이다.

B52G폭격기배치는 카터前대통령이 시작하여 레이건대통령이 계속 추진하고있는 미군의 핵억지력현대화 계획의 일환이다.

美공군은 순항미사일발사 장비를 갖춘 1백5대의 B52G폭격기의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그후에는 B52기의 최신모델인 B52H폭격기 96대에도 대당20基의 순항미사일발사장비를 갖출것이라고 공군관리들이 밝혔다.

카터前행정부때 국방성의 연구책임자였던 윌리엄·페리박사는 B52G폭격기에 적재될 순항미사일이 소련영내목표물의 30~60m이내 지역을 강타할수있다고 밝힌바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361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8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株)慶宇대표이사 金漢榮씨외 임직원 同=1백45만원 ◆極東運輸(株) 대표이사 유창호씨외 임직원및 기사일동=1백29만원 ◆太進建設(株) 대표이사 文鶴東씨외 임직원 同=1백만원

(株)慶宇 대표 金漢榮씨外 1백45만원

極東運輸 대표 유창호씨外 1백29만원

太進建設 대표 文鶴東씨外 1백만원

◇金漢榮씨

◇辛椿承씨

◆서울太極라이온스클럽(회장 辛椿承)회원 同=50만원 ◆신진전기공업(株) 임직원 同=50만원【水原지사접수】 ◆平澤中央라이온스클럽 회원 同=20만원【평택지국접수】

太極라이온스클럽 50만원

신진전기공업직원 50만원

平澤中央라이온스 20만원

江南 清潭洞 김지현 20만원

平澤高麗社 약품 15만원

鍾路 鳳翼洞 선남순 11만원

梨花女高17회동기 10만원

◆평택高麗社藥品임직원 同=15만원 ◆강남구 청담동 김지현=20만원 ◆종로구봉익동12의4호 약사도사 선남순씨=11만5천원 ◆梨花女高제17회졸업생 同=10만원 ◆마포구 서교동 332의8 김낙기씨=5만원 ◆평택군팽성읍 원정리92 허기남씨=2만원【평성지국접수】

政治議案 타결위해 3黨代表 회담갖자

民韓·國民총재제의

政治議案에 대한 與野異見으로 8일로 국회활동이 5일째 空轉하는등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진통을 겪게되자 柳致松民韓·金鍾哲국민당총재는 이날議案에대한 정치적타결을 모색키위해 빠른시일안에 3黨대표회담을 갖자고 民正黨측에 제의했다.

이에대해 民正黨측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는데 李鍾贊총무는『政治議案은 3黨총무들이 계속협의중인데 代表들이 개입할경우 총무들이 난처해질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柳·金두 야당총재들은 7일저녁 서울시내음식점에서 만나 政治議案처리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를 해소하기위해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3黨총무線이상의 새로운차원의 정치적절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같이했다.

이들은 또 11代국회출범후의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산안의 만장일치통과등 정치적인협조를위해서 고조된 상황에서 黨利黨略의 차원을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政治議案의 타결을 강력히 요구키로했다.

한편 3黨총무들은 9일상·하오 두차례에걸쳐 접촉을갖고 이문제에대한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다.

社会漫評

大企業 은행株소유 上限線 8%로

財務委 확정

국회財務委금융관계법심사小委(위원장 鄭順德의원)는 8일하오 大株主의 은행주소유上限線을 정부안의 10%에서 8%로내리고 초과所有分의 처분유예기간을 정부안대로 3년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소유주식과 지방은행및 合作은행은 이제한규정에서 제외하기로했다.

또 이날小委는 정부안에서 系列企業群 총與信규제근거로 신설한 「金通委는 系列기업群단위로 금융기관의 總與信한도를 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 규정을 「金通委는 계열기업군단위로금융기관의貸出이나 債務의보증또는 引受의합계액의 한도를정해 이를 제한할수있다」로 고쳐 大企業에 대한 금융기관의 與信限度額을 축소토록했다.

小委는 이밖에 非常勤理事制를 도입하는등의 銀行法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고 정부와 民正·民韓黨이 제출한 금융실명거래법안과 수정안은 贊反의견을 붙여 財務委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高速道路통행료도

오는15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최하5%에서 17%까지 평균 9.8%가 오른다.

8일 건설부는 현행차종별 ㎞당 고속도로사용 기본요금을 ▲승용차는 16원39전에서 17원84전으로 5% ▲버스는 37원81전에서 40원46전으로 7% ▲보통화물차는 15원16전에서 17원74전으로 17% ▲대형화물차는 36원11전서 42원25전으로 17%씩 각각 인상했다.

이와함께 현재 장거리를운행하는 버스, 화물차에 대해 현재 1백~3백㎞까지는 10%, 3백㎞이상은 20%씩 각각 할인해주던 구간거리 체감제를 15일부터 폐지키로했다.

地平線

감기·독감등으로 병원을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고한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데다 日較差가 심해 목이붓고 기침을 하는이가 많은가하면 이번감기는 폐로 옮겨간다고들 말한다. 그 바람을 탄듯 신문광고엔 무슨독감 무슨독감에 잘듣는다는 와친선전이 눈에 띈다.

▼하나 病原體가 몇십 몇백가지 있는 탓인지 우습게 보이면서도 안 없어지는것이 감기며 독감인것 같다. 몇해전엔가 노벨의화상을 탄 보링박사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감기예방이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끈 일이 있다. 임상실험결과 비타민C는 감기를 가볍게 하는 효과는 조금있다는 것이 요즘정설이지만 신통한 얘기는 못되는것 같다. 토론토대학 앤더슨박사의 주장도 몇g의 비타민C만으로 감기를 없애주는 없고 다만 병 증상을 가볍게하며 그 기간을 30%정도 줄인다는 것이었다.

▼감기의 전파체는 바이러스로 알려져있지만 만족할만한 와친이 아직은 별로 안 나와 있다. 해마다 새로운 형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때문에 [illegible]免疫體를 만들었다 해도 얼마 가지못해 효과가 없게 마련인 것이다. 또 어떤 와친은 빛속에 들어가면 그 효력이 몇 주일 못가 없어진다는 얘기마저있다. 어느 한 외국기업체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수는 거의 맞먹을 정도로 비슷했고 감기로 직장을 쉬는 횟수도 별 차이가 없었는데 쉬는 기간만은 와친을 맞은 사람이 짧았다는 조사보고가 있었다.

▼감기에 걸리면 앓을만큼 앓아야 낫게 되는 것이 현대의학이 놀랍게 발달된 오늘날에도 숨길수없는 실정인지 모른다. 감기약은 對症요법에 불과하여 콧물감기나 재채기에는 抗히스타민劑, 목아픈데는 양치약, 기침에는 鎭咳劑,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플때는 解熱消炎劑를 써야하고, 安靜과 營養으로 고치는 것이 감기라고 한는게 보통이다. 또 대단치 않은 감기·몸살에 약을 잘못 먹어 뜻하지않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까지 있다.

▼20세기의 仙藥인 항생제도 감기의 산물인 폐렴을 예방해주기는 하지만 감기 그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그까짓 감기쯤이야 하고 사과나 먹으면서 깔볼것이 아니라 감기예방에대한 연구발전이 뭣보다도 아쉬운 인류의 과제인것같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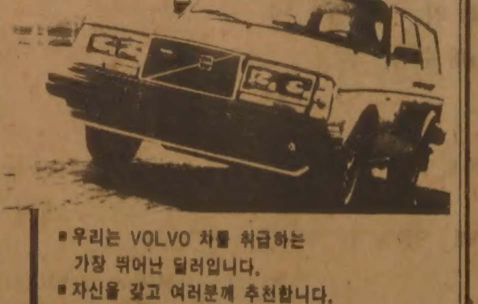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Tel: (B)488-2444 (R)759-4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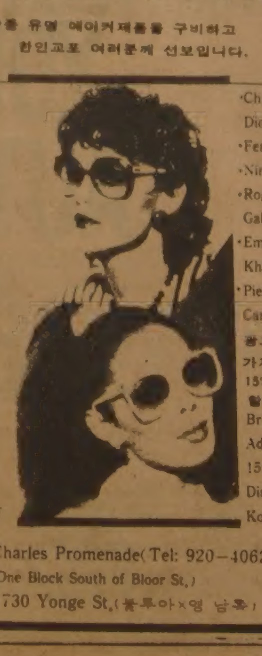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ㅁ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미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교실.
ㅁ기초반·중급반·상급반
ㅁ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ㅁ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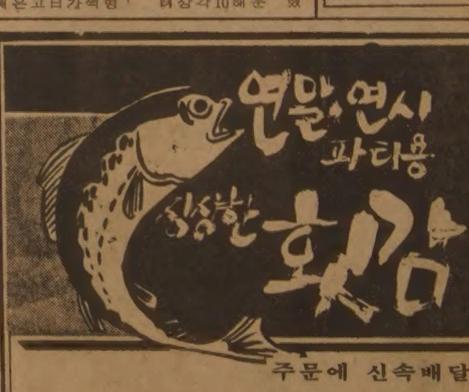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중고차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 T. S. MOTORS
전화 : 751-7664 로렌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해 드립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주문에 신속배달
●횟감 : *민어 *튜나
●신선한 생선 : *아지
*가재미
*동태
*새우
*물오징어
항상 준비되어 있읍니다.
(파티용 TRAY는 3일전 예약바람)
3413 FIELD GATE DR. MISSI.
(블루어와 딕시에서 2블락 동쪽에 위치)
624-3092 임호빈
FOREST GLEN
SEAFOOD

美, 새中央司令部 창설

中東·페르시아灣·印度洋 방위전담

全軍망라 23萬兵力규모

초대司令官에 킹스턴中將 임명

【워싱턴AP=聯】美국방성은 8일 中東·페르시아灣·印度洋지역의 방위를 전담할 새中央사령부의 창설을 발표했다.

이번에 창설되는 중앙사령부는 파키스탄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中近東지역 일대에서 발생하는 戰爭등 비상사태에 대비, 미국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陸·海·空·海兵隊의 전군을 망라한 23만명의 병력규모로 창설된다.

이란 회교혁명과 소련군의 아프간 침공이후 카터행정부 때 발족된 신속배치군을 보강, 발전시키는 형태로 창설되는 中近東중앙사령부는 美합동참모본부로부터 직접 작전명령을 받게된다.

중앙사령부의 작전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시리아, 레바논·이스라엘등 3개국으로 이들지역은 西獨에 본부를 두고있는 유럽사령부에서 계속 전담하게된다.

중앙사령부에 배속될 부대중에는 제82공수사단, 제101공수사단, 제24보병사단 및 다수의 공군전투비행단이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中東·페르시아灣·印度洋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경우 中近東중앙사령부 병력은 공군수송기편으로 이지역으로 급파되며 오만·케냐·소말리아등에 있는 해·공군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소식통들은 이집트가 홍해연안의 라스·바나스에 있는 기지사용을 제의해왔다고 전했다.

이 중앙사령부의 사령관에는 신속배치 군사령관이었던 로버트·킹스턴 중장이 임명될것으로 알려졌다.

◇17명숨진 爆破사건 현장 6일밤에 일어난 北아일랜드의 벨리켈리市內 한술집의 폭파사건 현장에서 한 英國軍병사가 경계임무를 펴고 있다。이사고로 17명이 숨졌다。【벨리켈리 (北아일랜드) 7日AP錄=聯】

蘇, 아프간서 大虐殺劇

人權조사단보고 9·10월에 2百여명死亡

【이슬라마바드AP統=聯】아프가니스탄주둔 소련군은 지난9월13일 카불남쪽 60㎞의 파드콰브·에·샤나에서 11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1백5명을 불태워 학살했다고 3인권조사단이 7일 밝혔다.

소련군은 지난11월에도 카불 바로 위쪽에 있는 쇼말리지역과 동남부도시 칸다하르인근의 아르간답등에 모두 3차례의 공습을 감행, 적어도 1백20명의 아프간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이슬라마바드의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아프간사무국의 위임을받고 지난3월말 비밀리에 학살현장을 방문한 러셀人權조사단의 대변인이자 아프간문제권위자인 미국작가 마이크·배리씨는 소련군의 만행이 지난9월13일새벽 인구8천명의 파드콰브·에샤나에 있는 한地下관개수로에서 발생했다고말했다.

독자外交 추구 中共수상 趙紫陽

【北京AP=聯】중공수상 趙紫陽은 7일 중공이 미국과의 관계발전에 여전히 중요성을 부여하고있으나 중공이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수행할 것임을 거듭강조했다고 중공관영新華社통신이 보도했다.

新華社통신은 趙紫陽이 이날 제임즈·슐레진저 前美국방상및 리처드·홀브루크 前美국무차관보와 만난자리에서 중공은 反覇權主義·세계평화의 안전이라는 원칙위에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련과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했다고 전했다.

술츠·콜 서독首相 東西관계등 논의

【본AP=聯】西獨을 방문중인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은 7일 헬무트·콜西獨수상과회담을 갖고 군축회담및 세계경제현황을 비롯한 東西관계를 논의했다.

美下院 MX생산否決

1차분 9億8千萬弗 전액삭감키로

【워싱턴=李文熙특파원】美하원은 7일 레이건행정부의 국방비지출법안에 계상된 MX미사일 1차분생산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레이건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패배를 안겨주었다.

下院은 이날늦게 표결을 실시, 2백45대1백76으로 총2천3백16억달러의 국방예산중 MX미사일 1차분(5基)에 할당된 9억8천8백만달러를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레이건대통령이 美군사력증강의 핵심이자 소련의 核무기감축을 유도하는 평화유지수단으로 중시하고있는 MX미사일에대한 의회의 이날 표결은 원안통과를위해 끈질긴 對의회설득작업을펴온 레이건대통령의 개인적인 패배이기도하다.

정부관리들은 이날 하원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지지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으나 民主黨등 반대파들은 上院표결에서도 역시 이를 저지할수 있다고 자신했다.

파나마, 北韓人2명 수감

武器·麻藥밀매 관련혐의

【파나마시티聯=聯】파나마당국은 현재 2명의 북한인들을 파나마 불법입국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이2명의 북한인들은 무기와 마약밀매에 관련돼있을지 모른다고 파나마입국관리소관리들이 7일 말했다.

파나마 입국관리소장 파시피코·사베트라 소령은 이북한인들의 이름이 吳성일·金현구라고 밝혔으며 이2명을 체포한 또다른 파나마 입국관리소관리는 이북한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무기와 마약밀매외에도 파나마와 기타지역에서 공공질서를 파괴하기위한 목적의 행동들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말했다.

한국新聞협회 회원一行 어제海軍부대방문 격려

한국신문협회(회장 文胎甲 서울신문사장) 회원 일행은 8일상오 연말을 맞아 해군9695부대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씩 일선장병 위문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온 한국신문협회 회원들은 이날 해군9695부대에 도착,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했다.

이날 신문협회 회원들은 위문품으로 컬러텔리비전 5대와 카세트녹음기 15대를 마련, 부대장에게 전달하여 장병들의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했다.

해군장병을 위문한 한국신문협회 회원은 다음과같다.

▲文胎甲(서울신문사장)▲方又榮(조선일보〃)▲金相出(대구매일신문〃)▲金相琪(동아일보〃)▲李鍾基(중앙일보〃)▲鄭九鎬(경향신문〃)▲洪惟善(한국일보부회장)▲安世永(대전일보사장)▲金宗太(광주일보〃)▲羅炳厦(매일경제〃)▲姜約遠(강원일보〃)▲李揆行(한국경제〃)▲韓鍾愚(코리아헤럴드〃)▲朴商福(경인일보〃)▲朴相鎭(충청일보〃)▲文동리(전북신문〃)▲李中(경남신문〃)▲金大成(제주신문〃)▲丁泓頓(신문협회 사무국장)

蘇 中間權力層인사 宣傳部長 스투칼린

【모스크바AP=聯】소련공산당은 국가출판위원회의 위원장 보리스·스투칼린(49)을 黨中央委 선전부장에 임명하고 그의 후임에는 前콤소몰(공산청년동맹) 제1서기보리스·파스투호프를 앉혔다고 소련의 한 TV방송이 7일 보도했다.

이 TV방송은 모스크바에서 6일 열린 한 공식회의에 관해 보도하면서 스투칼린이 새선전부장에 임명됐음을 전했으나 黨은 관례에따라 이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있다.

手術6일째 위독상태

人工心臟이식 클라크박사

【솔트레이크시티(유타) AP=聯】지난2일세계최초로 영구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전직치과의사 바니·클라크박사(61)가 수술6일째인 7일 발작증세를 일으킨후 위독상태에 놓여있다.

클라크박사가 입원중인 유타대학병원의 체스·피터슨부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클라크박사가 합병증을 일으킨것같다고 말했다.

人事異動

關稅廳

▲관세조사국장 朴昌來(大邱세관장)▲통관관리국장 金基仁(서울세관장)▲관세공무원교육원장 朴珍秉(본청근무)▲서울세관장 金景泰(통관관리국장)▲釜山세관장 趙濟(仁川세관장)▲大邱세관장 孫潤睦(관세조사국장)▲仁川세관장 崔德燁(관세공무원교육원장)▲金浦세관장 梁聖範(釜山세관장)▲본청근무 鄭重烈(金浦세관장)

本社來訪

▲金鍾烈씨(아시안게임 출전 한국선수단장)金漢洙씨(섭외) 金晟樂씨(총감독) 朱錫鉉씨(단장보좌) 귀국인사차 ▲崔允庭·允喜양(아시안게임수영메달리스트) 인사차

記者의 눈

銀行法 행차뒤 나팔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고 한다。그러나 예외가 많은 법칙은 이미 법칙이 아니다。

법률도 마찬가지。법을 운용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예외를 인정하지않을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예외가 많아지면 법은 있으나 마나한것이 되고만다。좀 심한말이 될지모르지만 그런법은 차라리 없는것만 못하다。

그렇지만 법에 없는것이 예외취급을 받을수있는 당사자는 대개 강자이기 십상이다。특히 어떤 법률이 강자에게 예외적특혜를 받을수있는 길을 터놓았다면그 법은『法앞에 萬人은 평등하다』고 선언한 근대법치주의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지금 국회는 은행법개정안의 마무리작업을 서두르고있다。은행법개정안의주요골자는 특정대기업에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하고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자는 것으로 집약된다。

은행법개정안은 대기업에대한 편중여신을 막기위해 은행은 동일기업에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25%、지급보증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묶어놓았다。확실히 이 법은 편중여신을 막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현실을 보면 도무지 법이 운신을 할수 없게시리되어있다。최근여신동향을 보면 대출한도를 초과한 기업이 16개업체、지급보증한도를 초과한기업이 31개업체에 달한다。만일 이들大企業에 법의 정신을 강요한다면 기업활동에지장이생기고 단서조항에따라 예외를인정하게 되면 톱클라스의 대기업 47개업체만 예외적 특혜를 받게된다。그런데 재무부는 예외규정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이렇게되면 법의존엄성에 손상이가지않을까。

이같은 현상은 금융의대기업집중과 재벌의 비대화가 맞물고 돌아가면서 나타난것。금융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현행법이나행정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시정할수있는것을 공연히 法을 끌어들여 법의위신만 실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기위해 재벌의 은행주식소유및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도『행차뒤의나팔』이나 다름없다。自由黨시절의 쓰라린경험을 잊지않았다면 은행을 민영화하기전에 재벌의지배를 막을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는게 옳았다。

그런데 어떻게된셈인지 무엇에 쫓기듯 민영화를 앞세워 은행을 재벌의 수중에 넘겨주고 뒤늦게 재벌지배를 막겠다고 야단이다。지금처럼 재벌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은행을 장악하고있는 상태아래서는 소유권 한도를 10%로하나 8%로하나 의미가 없다。

재벌은 5%씩만 가져도 담합을통해 은행을 분할지배할수있고 은행은 조만간 재벌의 사금고화될수밖에 없다。만일 정부가 간섭을 배제하고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면 그럴수록 은행은 재벌의 손에 놀아날수밖에없는 아이러니가 성립된다。

따라서 재벌의은행지배를 막으려면 재벌의 은행주식소유를 막아야한다。그것은 법으로서가 아니라 행정력만으로도 충분하다。재벌은 바꾸어말하면 은행돈많이 쓴사람。은행주살돈있으면 은행빚갚으라하면 재벌은 범접할수없다。뜻이있는곳에 길이있다。공연히 법만 탓하지말자。【朴炳潤·經濟部부장대우】

社說

빨라야할 懸案妥結

—韓日間의 새雰圍氣와 우리期待

서울과 東京간의 懸案타결은 아직도 不確實要因이 적지 않으나 분위기개선에 거는 기대도 점차 무르익어가는 느낌이다。

지난 3일 나까소네(中曾根) 日本首相은 衆議院본회의에서 한 첫 所信表明연설을 통하여 對外關係에 언급하는가운데 美國을 가리켜「가장 중요한 同伴者」라고 지칭하는 한편「지리적으로 밀접」한 아시아國家들과의「상호理解와 友好關係강화」를 유난히 강조한바 있었다。이어 日本外務省소식통은 6일 새內閣의 外交的 最優先과제가 美日관계개선과 더불어 經濟協力등 韓日懸案의 조속한 타결임을 지적했다고한다。

韓國의 경우、日本 새內閣에 나까소네首相을 비롯하여 아베(安倍)外相、다께시다(竹下)藏相、야마나까(山中)通産相등 知韓派 人士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퍽 고무적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日本敎科書문제가 일단락된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양국간의 가장 중요한 懸案으로 부각되는 것이 그동안 2년을 끌어왔으며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經濟協力교섭의 재개로 집약된다는데 대해서는 긴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지난 30일 全斗煥대통령과 나까소네首相간의 전화대담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의 상봉을 기약했거니와、오는 21일부터 이틀동안 韓日議員聯盟합동총회가 東京에서 개최된다。80년1월이후 중단되었던 韓日貿易회담도 내년1월에 개최될 예정이라한다。

그런데 오는 1월18일로 정해진 레이건美大統領과 나까소네首相간의워싱턴 首腦會談을 앞두고 부시副統領은 3일 美日간의 貿易不均衡에 언급하면서 日本측의 市場開放을 촉구하는 가운데「눈에 보이는 구체적 대책」의 제시를 바란다고 하였다。그리고 나까소네首相은 7일의 定例閣議에서 美日간의 貿易마찰 해소를 위해「국내의 방법에 관계없이 對外貿易政策을 自由化」할것을 강조했다는 보도이다。

생각컨대 韓日간의 經協문제는 美日간의 貿易마찰과는 그 내용이 다르지만 美國측이 日本에 대해 빈말대신「눈에 보이는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으며 한편 나까소네首相이「국내반발」에 언급한것은 적잖은 示唆點을 느끼게한다。

오늘의 시점에서 그동안 日本의 爲政者들이 되풀이해온 듣기에만 흐뭇했던 空約이나 美辭麗句의 羅列은 더이상 통용될수 없게 된 셈이다。그리고 日本의 歷代首相들이 言必稱 밤재삼았던「국내 반발」의 實質은 政治家답지않은 經綸과 勇氣의 부족에 관한 告白외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懸案타결을위해 과감히 新局面을개척하려면 反作用에 의하여 이익을 보는 일부近視眼的 實業人과 구두먹수를 늘사로 알다시피 하는 일부官僚들의「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법이다。정녕 우리가 나까소네首相의 政治姿勢를 눈여겨 지켜보는 관심사가 바로 그점이다。

이제 韓日간의 해묵은 經協문제의 懸案은 세칭 60억弗借款교섭과 貿易不均衡 완화외에 반것이 없다。韓國의 對日貿易逆調를 말하면 國交正常化후인 66년부터 작년까지의 16년간만보아도 赤字누계가 勿驚2백16억달러에 달하였다。

그런에도 日本政府의「通商白書」를 보면 美國과 EC諸國등 先進國들과의 貿易마찰에만 초점을 맞출 따름이지 韓國과 같은 中進國 또는 開途國과의 貿易마찰은 애써 외면하려하고 있다。게다가 名分있는 借款공여까지 무성의를 극한 인색을 고집한대서야 어찌「善隣友好」나「國際經濟活性化에의寄與」를 자부할수 있겠는가 말이다。

물론 우리는 개운찮은 旣往之事를 더이상 거론하고 싶지않다。다만 상호 補完의 共存共榮을 實感케하는 經協문제의 前向的 解決없이는 두나라에 고루 이로울수 없는 政治·外交분야의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태의 시정또한 좀처럼 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고 지적해 둘 따름이다。經協문제를 주축으로 삼는 韓日간의 懸案타결을 위해 心機一轉의 生産的인 對話再開있기를 刮目期待하고자 한다。

오름幅 上限線 定하길

—公共料金引上에 따라야할 課題

철도여객운임을 비롯한 일부 교통수단의 요금이 올랐다。

오는15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요금인상은 철도여객 철도화물 고속버스 市外버스(완행) 市外버스(직행) 沿岸여객선 沿岸船화물 國內항공여객 國內항공화물등으로서 그 幅이 매우 넓다。다만 地下鐵과 市內버스 택시및 用達車의 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되어 있다。

또 準交通料金이라고 할수 있는 고속도로通行料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임이 밝혀졌다。10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함께 보도된 이 通行料는 요금계산방법도 바뀌어 거리에 의한 현재의 遞減制를 폐지함에 따라 장거리인 서울~釜山間의 경우 貨物車는 실제로 오르는 비율이 30%를 웃돌게 된다고 한다。

公共서비스업은 民營일때에는 더말할것도 없고 國公營일적에도 收支균형을 맞추는 독립채산제로하여야 된다는 이치는 익히 알려져있는터이다。그러므로 당국이 교통요금을 올리기로한것은 收支균형원칙에 따른것일을 局外者라도 헤아리기는 어렵지않다。

그러나 收支균형이 原則이라하더라도 지금과같이 物價오름세를 擧國的으로 배격하는 시기에는 이를 색다르게 適用·운영하여야할 여지는 있는것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첫째 오름세를 배격하는 국민의 心理에 一擊을 加하는것과 다름없는 공공요금인상은 그 나쁜 영향이 적지않을것임을 지적하여야 하겠다。新年度예산이 確定되자 기다렸다는듯이 料金을 올리고보면 市民들은 불안해 지기 쉽다。

둘째로는 당국이 발표한바 이번에 올리기로 한 인상폭은 3·4%(시외직행버스)에서 9·4%(市外완행버스)로서 小幅的인 것이라고하겠다。그리고 이들 오름幅은 각각 정밀한계산끝에 내려진 결론이라고 믿고자한다。하더라도 이용자인 市民들은 그러한 계산의 內容을 알지못하며、알지못하는까닭에 이를 疑訝하게 생각하게 마련이다。이점에서 구태의연한 당국의 새요금決定방법은 재고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세째로는 公金利가 크게 낮아진 이때이니 만큼 그 限度내에서 이것이 서비스업체의 收支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법하며 年條를 쌓을수록 능숙해지는 업체들의 經營技法도 경영상태를 好轉케하리란것이 一般的인 기대인것이다。

金俊成副總理는 지난10월21일 국회경제과학委員會席上에서 내년도의 公共料金은 物價上昇수준인 5%이내에서 수습하겠다고 言明한바있다。이5%이내수습과 이번의 새교통요금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것인지 매우 궁금한 터이다。특히 금년 7월 인상된 철도요금이 다시 올라 한해에 두번씩이나 오른 빈도는 이런 궁금증을 더 짙게 한다。

물가에 관한 우리의 염려는 교통요금의 경우처럼 오름세에 당국이 앞장서는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데서 연유한다。새교통요금이 企業의 原價와 家計收支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수는 없을것이다。

또 많은 시민들은 鐵道廳의 支出이나 민간교통업체의 收支계산등과 관련하여 오늘날 과연 요금을 올려야될 정도인가、그리고 물가5%이내의 安定線下에서 이들 요금의 오름폭은 모두 타당한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물가는 安定된 상태다。賃金引上率도 一定化하는 추세다。그러고보면 모름지기 당국은 公共요금을 올리는 年間上限線을 確固히 정하여 기준을 지켜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할것이다。

작년중에는 각종 公共料金이 一般物價보다는 배이상이나 올라서 물가등귀의 선도자 구실을 하였다。금년의 경우도 年初에는 公共料金을 가급적 올리지 않기로方針을 세웠다가 6월에는 市內버스 학생요금을 41%나 올리고 7월에는 연탄(3·3%)과 철도요금(5%)을 올렸던것이다。연탄의경우는 그뒤나타난 업자들의 과당경쟁에서 값을 꼭 올려야 했던가를 의심케하는 사태까지 전개되고 있는것이다。깊이 돌이켜볼 대목이다。

政局往來

"繫留중인 政治議案은 해가져도 걸려있는 빨래같은것"

◆「새시대새마을」5만5천부발간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새마을운동성과를 담은「새시대새마을」이라는 제목의 畵報5만5천部(英文5천部포함)를 발간, 배포중。

菊倍版크기에 2백20페이지로 돼있는 이畵報는 금년 한해동안있었던 全斗煥대통령의 새마을 동정과 새마을운동의 분야별 성과、새마을운동의 國際化·민간主導化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

대통령비서실은 이畵報를 새마을운동중앙본부및 산하단체등 운동단체、公共기관、해외공관、민단체등 在外기관등에 배포할계획。

◆대표介入은 총무들무안케하는것

民正黨은 民韓·국민당측에서 3黨代表회담을 제의해온데 대해 선뜻 나서지 않고 주춤하는 태세。

柳致松民韓黨총재는 8일상오 9시께 民正黨당사로 李載瀅대표위원에게 전화를 했으나 때마침 李대표가 민족통일협의회에 참여하느라 연락이 안되었다。

이날하오3시께 당사에 돌아온 李대표는 代表회담에 대한 방침을 확인하려는 기자들에게『아직 연락을 못받아 뭐라고 말할수는 없다』면서『3黨3役회의에서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넘어왔다면 몰라도…』라고 말끝을 흐리는등 소극적 반응。

한편 李鍾贊총무는『소위 政治議案을 총무끼리 논의중인데 黨대표들이 介入하겠다는 것은 총무들을 무안케 만드는 것』이라면서『代表회담으로 格上시켜 일임하는것은 총무들의 無能을 폭로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못마땅해 했다。

◆조직책人選은 院內우선 원칙으로

民韓黨은 8일 그동안 전국 92개 지구당의 운영실태에대한 監査결과를 토대로 8개 지구당을 사고당부로 指定하고 지구당 개편대회를 시달하는등 전당대회채비를 본격화하기 시작。

柳漢烈사무총장은 사고당부 지정과 관련,『새로운 조직책을 人選하기위해 조직강화特委를 오는 20일께 구성할 방침』이라면서『院內優先원칙이기는 하나 德望있는 인사들을 迎入하는데 인색치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편 黨內一角에서는『지도부가 조용한 전당대회를 생각하고있는만큼 사고당부에 대한 새로운 조직책 人選은 전당대회이후로넘어갈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한편 黨權도전說이 나돌고있는 辛相佑전사무총장은 시내 모처에 거점을두고 黨內인사들과 접촉을가져 눈길을모으기도。

◆빨래도 거둬들일때는 거둬들여야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는 政治議案처리로 국회가 계속 空轉되자 이를 타개하기위해 3黨대표회담을 제의해서 주목。

金총재는 8일『시기적으로 各黨의 黨職者들이 임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政治議案에 대한 어떤 매듭이 있어야할 필요성때문』이라고 회담제의의 동기를 설명。

金총재는 3黨대표회담제의에 앞서 지난7일저녁 民韓黨柳致松총재를 시내P호텔에서 약2시간반동안 단독으로만나 예비접촉을한뒤 民正黨측에 공동제의키로 했다는것。

이날 기자와만난 金총재는『2년여에걸쳐 타결을 보지못하고 계류중인 政治議案은 마치 해가 저물어도 걸려있는 빨래와같다』며『빨래도 거둬들일때는 거둬들여야하듯政治議案도 이제 결론을내려야할때』라고 강조。

한편 金총재의 이같은 갑작스런 공세를두고 黨內에서는『그동안 黨舍에 모습도 나타내지않다가 전당대회가가까와오자 뒤늦게 발동을거는게 아니겠냐』고 풀이하기도。

◆黨權挑戰說엔 8일고비로주춤

예정대로 내년 1월 전당대회를 한다는 방침을세운 국민당에최근들어비교적 활발한양상을 띠던 黨權도전 움직임이 8일을고비로 사들해진 느낌。

평소 현지도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으로 黨權도전의사를 비치면서 수일내 공식태도를 밝힐것으로 알려졌던 李萬燮부총재는『현재 나의 심정은 착잡하고 괴롭다。去就문제를 여러가지로 심각하게 생각하고있다』고 갑자기 주춤。

또한 조용하게 擧黨的으로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캐치프레이즈아래 金鍾哲—李萬燮씨의대립이 銳角化될 경우제3의인물로李鍾贊전당대회의장을 내세울 움직임을보였던「擧黨협의회」도 10일에 열기로 했던 名者모임을 돌연취소했는데 李東鎭총무는『그모임이 안정을위한 수습보다는 平地風波가 될까봐 서명자들이 스스로 自制한것으로 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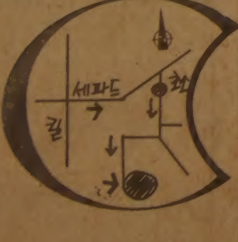
해병의 밤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모함을 떠나면 배수진 뿐인 상륙전!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물어 가는 이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전우간에 화목 단결하고
상부 상조하는 단합된 우리의 전통을 더욱 돈독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일 시 : 1982년12월18일(토) 18시
장 소 : C.F.B. TORONTO (킬과 세파드)
회 비 : 30불(커플) 15불(싱글)

특별순서
ㅁ정영수 태권도 시범
ㅁ김용순 무용 순서
최영호와 그의 악단

•연 락 처 : ㅁ송기선 ☎ 621—2059
ㅁ이인모 ☎ 691—3666
ㅁ하주용 ☎ 769—5956

※식사전 음료수(술포함)는 본회에서 제공 함.
※많은 경품및 상품이 준비되어 있음.
※한국 참전용사및 많은 내외귀빈들이 초청되어 있음.

해병 전우회 회장 남상현

올해는 高得點者 러시 「80년도 合格圈」참고를

내點數는 어느大學에

入試情報 어느大學엘 가야하나

나의 점수는 과연 어느대학、무슨과수준에 속하는가、학력고사 응시자 65만명중몇번째안에 속하고、상위 그룹인가 중상위 또는 중위그룹인가를따져보는데서부터시작하자。우리나라의 대학은 오랫동안의 학풍과 전통 또는 인기도로서、학생들이 성적순에따라 지망하도록 다름대로 보이지않는 질서를 마련해놓고있다。

문교부가 시험당일 정답을 공개함에따라 수험생들은 어느정도 자신의 점수를 예상하고있다。때문에 수험생들에겐 자신의 점수로 희망하는 대학의 계열또는 학과에 합격할수 있는가가 최대의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현재 수험생들은자신의 점수를 알고도 어디에 지망해야 할것인가 갈피를못잡고 있다。예년같으면 자신의 예상점수로 어느대학 무슨학과에 지망할수 있을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으나 올해 수험생들은 이같은 예측조차 할수없는 입장에 놓여있다。이번학력고사가 종전과는 다른득점분포가 예상되고있기때문이다。

현재알려진 정보라곤 전반적으로 득점분포가 상향이동할것이란것뿐 어떤점수대에 얼마만큼의 폭으로 변동이 있으리라는 근거있는 전망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망대학및 학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다。일선 고교 진학담당자나 학원의 입시전문가들도 아예 상담을 피하고있는 실정이다。이는 곧83학년도 입시에 많은 변수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가지 재미있는분석이있다。입시전문가들에의하면 각종 예상자료를 토대로 살펴볼때 이번학력고사의 득점분포는 지난 80학년도의 그것과매우 유사할것이라는 예측이다。80학년도의 학력고사도 비교적문제가쉬워 고득점자가 유례없는 러시현상을빚어 수험생들이 각대학의 합격권예상에 큰혼선을 빚었었다。(참고로 80학년도의 득점누가표와 각대학합격자들의 예시평균점을 싣는다)

수험생들은 지난 80년도의 합격권을 참조하면서 82년도의 합격권에 10점이상을 가산해보는것도 올해합격권의 윤곽을 잡아보는데 좋은참고가될것이다。이때 중요한것은 지난해 심한 눈치작전과 배짱지원등으로 생긴 일부학과의 기현상의 결과를 무시하고 변화해가는 학과의 선호도를 파악하는한편 자신의내신성적을 반영하는일이다。

이번 입시에 영향을 줄만한 변수요인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는것은 안개속에 갇힌 수험생들에게 어느정도 방향을잡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지난 3년간 각대학 예시평균

대학	학과	80	81	82
서울大	인문Ⅰ	309·2	295·1	280·8
	〃 Ⅱ	309·2	295·1	280·5
	〃 Ⅲ	309·2	295·1	280·1
	사회Ⅰ	315·3	300·6	291·2
	〃 Ⅱ	315·4	300·6	295·0
	〃 Ⅲ	315·4	300·6	287·1
	법 대	320·4	305·8	307·5
	경 영	315·3	306·4	292·2
	교육Ⅰ	300·4	288·5	277·8
	〃 Ⅱ	300·4	288·5	280·3
	공 대	303·8	296·4	288·1
	자연Ⅰ	304·4	293·9	258·3
	〃 Ⅱ	304·4	293·9	296·5
	〃 Ⅲ	304·4	293·9	277·8
	〃 Ⅳ	304·4	293·9	279·4
	〃 Ⅴ	304·4	293·9	274·7
	교육Ⅲ	289·2	287·0	269·2
	농 대	277·9	207·7~259·1	259·3
	의 예	330~268	306·0	304·6
	약 대	296·3	289·2	282·2
	가정대	289·2	279·0	267·6~269·0
高大	법 대	311·3	290·2	—
	경영대	304·2	286·9	—
	문과Ⅰ	297·6	268·2	—
	〃 Ⅱ	297·6	276·5	—
	〃 Ⅲ	296·4	271·7	—
	농경제	279·0	263·1	—
	정경대	300·5	276·9~290·2	—
	사범대(문과)	281·5	263·0	—
	이과대	276·0	262·0	—
	공 대	278·1	271·3~274·7	—
	농과대	268·2	251·0~261·0	—
延大	문과대	296·4	252·7~279·9	247~267
	상경대	298·0~307·3	285·1	254~269
	사회대	298·5	275·6	261~262
	법 대	298·4	277·2	257
	교 육	296·4	260·5	253
	이과대	268·1~284·9	257·9~274·0	244~264
	의 예	301·5	291·6	284
	공 대	271·4~297·0	271·9	244~260
	가정대	274·9	260·1	231~250

◇80·82학년 학력고사 득점및 83학년 예상득점누가표

점수대	80	82	83(예상)
300점이상	4,048	827	2,500
290 〃	7,711	2,090	5,500
280 〃	12,829	4,260	10,700
270 〃	19,861	7,618	15,700
260 〃	29,497	12,923	23,800
250 〃	41,663	20,818	34,600

<83학년도는 大學入試社 추정임>

再修生증가、눈치‥안통해

文科 6~7點、理科 7~8점上向

이번입시에서 나타난 지원생의 특징은 ▲지원자의 증가 ▲재수생의 증가 ▲외국어선택의 변화등을 들수있지만 가장 문제가되는것이 재수생의 증가이다。

재수생의 증가율은 어느때보다 높아 지난해 20만1천7백31명에서 올해는 24만7천6백29명으로 4만5천8백92명(22·8%)이 증가했는데 전체재수생중 5만여명

다。수험생들이 대학지망에 앞서 혼미해지는것도 바로 예년과 차이가 심한 난이도 때문이다。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문과 이과계열의 점수의 득·실은 점수의 분포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입시전문가들이 분석한 과목별난이도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영어가 6~7점、수학 4점、국사3점、정치·경제 1점、세계사 2점、물리 2점、지구과학1점、가정·가사2점 정도 쉬웠고、국민윤리2점、사회문화2점、국토지리2점、인문지리1점、화학2점、생물 1점、공업 2점、상업1점、농업3점정도로 어려운것으로 나타났다。

이분석을 종합하면 문과계는 지난해보다 6~7점、이과계는 7~8점을 더 얻었을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단 외국어에서 일본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한 예상 득점누가분포를 보면 3백점이상이 지난해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고、2백70점이상 상위득점자는 2배이상、2백50점이상은 60~70%가량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추정도 점수재생작업을 끝낸 서울시내고교의 예상득점분포에 비하면 매우 조심스런 편이다。일부 고교에선 3백점이상 고득점자가 5~6배、심한경우 15배까지 늘어난 경우도있다。

K고교의 경우 3백점이상자가 57명으로 지난해 9명에 비해 6배가 넘고 2백50점이상은 2백38명으로 1백명이 늘어났다。

지방의 명문고도 마찬가지여서 부산의 B고교는 지난해 3백점 이상자가 2명뿐이었으나 올해엔 30명선으로 늘어났다。

재수생의 경우 문제가쉽게 출제돼 고득점자 증가율은 다소 덜하지만 역시 2~3배로 늘어났다。S학원은 조사 대상자 6백19명중 3백점 이상이 3명、2백80점이상이 81명、2백50점이상이 3백53명으로각각 3배、25배、3배씩많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실례들을 종합해보면 세칭 명문고의 경우는 3백점이상고득점자가 4~6배、학원재수생과 일반고교는 2~3배 늘어나고 2백70점이상은 거의비슷하게 2~3배、2백50점이상은 60~70%정도 늘어날것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예견되는 이번 학력고사의 점수분포를 배경에 놓고、자신의 점수를 좌표로 찾는다면 어느 수준이라는것이 대강 짐작이 갈것이다。

이 짐작된 자신의 수준과 별표에 나온 지난3년간의 3개명문대학의 학력고사 평균점을 기준으로 하여 3개대학및 여타대학의 지망학과를 찾아 보는것도 유익할것이다。【方政俊기자】

對議會 영향력弱化

美下院 MX미사일 生産거부의 意味

【워싱턴=李文熙특파원】「평화는 힘의상징」이라는 레이건대통령의 군비정책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왔던 MX미사일 생산계획의 하원에서의 부결은 레이건대통령에게 두가지 측면의 문제를안겨주었다。

첫째는 레이건자신이 늘 주창해왔던것처럼 소련에 대한 핵전쟁의 억제역할을 할 중요한 장치와 소련과의 군축협상에서 기선을제할수있는 중요한 무기를못가지게 될지도모른다는 위협이며 레이건특유의 설득력으로 반대당 다수의 하원에서 중요정책을 거의빠짐없이 받아온 의회컨트롤에 이상을 의미하는게 아닌가하는점이다。

레이건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MX미사일 계획은 모두 2백60억달러가 소요되고 미국 와이오밍州의 체엔근처의 지하 사일로에 1백기를 배치하는데만도 2백60억달러가 소요되는 엄청난 계획으로 되어있다。

레이건대통령은 南美를 여행하는 중에도 의원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회지지를 위해 설득을 호소했고 투표하루전인 6일에는 이계획에 부정적인 76명의 의원을 백악관으로초치(그중 45명만참석)、설득을 계속해온것으로 전해졌다。

레이건은 이자리에서 투표일인 7일이 마침 일본의 진주만공격 41주년일을 상기시키면서『진주만공격이 가능했던것은 당시 미국이 日의공격을 억제시킬만한 능력이 없었기때문이었다』고 매우감상적으로호소했던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결과는 2백45대1백76이라는때배로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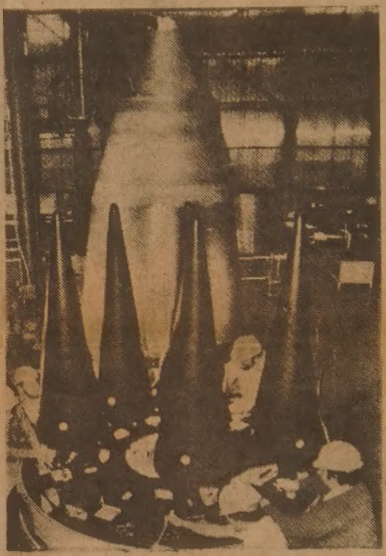
레이건의 재임2년간 중요이슈에서 첫번째의 對의회 패배였고 미국대통령의 군비계획이 의회에서 거부된것은 13년만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이날 하원이 9억8천8백만달러의 생산비는 삭감하면서도 17억달러의 MX미사일 연구조사 개발비을 그냥둔것을 두고 관계자들은 의회가 MX계획에 반대하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좋은 본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지난달22일 레이건의 MX배치계획이 발표된 이후 1백기의 MX미사일을 폭1.5km~25km구역안에 모두배치한다는 소위 밀집배치방법에 대해 미국내에서는 많은회의와 반대여론이 있어왔다。

한마디로 2백6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들여하는 밀집배치가 과연 소련의 핵공격시 모두 안전할수있을것인가 하는것이었고 따라서 이날의 하원의 부결은 MX미사일 계획자체에대한 반대가 아니라그 배치방법에대한 반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다 내면적인 배경은 엄청난비용과 때마침 소련의 새지도체제출현으로 새로운 美·蘇관계의 개선시도가 가능한 시기란것을 감안, 이계획이 소련을 자극하게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미되었을것으로 분석되고있다。



◇美매사추세츠주 윌밍턴에 있는 아브코 공장에서 기술진들이 검은원추모양의 모형 MX핵탄두와 몇개를 조립하고 있다。

엄청난 費用…人氣도하락

蘇 새지도자의 反應 신중히 측정

물론 MX지지자들은 1백기의 MX제작만으로도 마틴·마리에타·로크웰등 13개회사에서 13만5천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경제적 상황에다 투표하루전인 6일『미국이 MX미사일을 배치하면 소련도 이에 뒤지지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하겠다』는 소련국방상 우스티노프의 말도 영향을 주었을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소련의 새지도부출현으로 새로운 행동의 변화를발견하고 있지는않지만 그런기대를 저버리지도않고 있는것이 대부분의 여론처럼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배경들과함께 또다른 중요한것은 레이건대통령이 처음으로그의중요정책에서 의회의 지지를받지못했다는 점이다。

이날 투표에서 공화당의원50명이 레이건의 MX계획에 반대표를 던졌으며이에비해 민주당의원 동조자는 38명에 불과했다。

통상 레이건은 중요이슈에서 공화당의 배반자들이 이날투표보다 훨씬 적었을뿐아니라 소위 남부보수계 민주당의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당측의 동조자를평균78명선을 획득、무난히 과반수인 2백18명이상을 확보해 왔었다。

레이건대통령자신은 하원의 부결소식을 듣고 의회가 중대한 과오를 범했으며 그것이 번복되지않는한 미국의 안전은 후퇴를 감수해야하며 군축협상에서 미국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될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실망을 표시했다。

물론 MX계획이 하원의 부결로 좌절된것은아니다。행정부관계자들은 공화당다수의 상원의 심의결과를 기대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이미 반대의사를 표시해온 민주당의오닐의장등 지도부는 이의봉세를 위해 총력전을 펴나갈 계획으로있다。

黨內 老壯반발 무마위한 강제外遊

金正日 몰타國방문의 背景

權力세습 과정서 반대자 大擧숙청

무모한 對內外 政策에 金日成곤경

북괴 金日成은 그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金正日이 권력세습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저지른 숱한 횡포와 강압정치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고 재일교포계신문 統一日報가 8일보도했다。

統一日報는 이런 곤경의 타개책으로 金日成은 金正日을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게했으며 金正日의 몰타國방문도 이에따른 강제외유라고 최근 북한에서 들아온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統一日報는 지난달 15일부터 열린 북괴 당및 정권기관간부연례총회인「연간총회의」에서 당내 온건파들이 金正日이 제시한 무모한 대내정책과 숙청계획에 크게 반발했으며 이를 무마키 위해 金日成은 金正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강제외유를 시켰다고 보도했다。연간총회의는 개최 3일만에 중단됐다가 25일 겨우 재개되는등 이변을 보였었다。

黨회의에서 金正日은 한국과의 경제적 격차、외교적 낙후를 따라잡기 위해 ▲제2차 7개년계획을 83년중에 완수하고 84년을차기계획 수립의 해로 하자 ▲83년을 對南공작사업의 결정적 해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黨·政·軍의 늙은 간부를 일소하고 대신 3대혁명소조로 교체할 것을 제의했다。그러나 그동안 1천3백여명에 달하는 反金正日파의 숙청과 자파세력의 확장공작에 당내 노장 온건파가 반발、金日成을 곤경에 빠뜨렸다。

또한 徐澈을 위원장으로 하는 黨중앙검열위원회는 과감하게 金正日와 3대혁명소조원들의 비행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제출、이에 격노한 金日成은 金正日을 정책수립및 黨행정기관지도등 일체의 직무에서 손을 떼게했다는 것이다。이 보고서는 3대혁명소조가 ▲월권행위 ▲인민억압 ▲부녀폭행등 부도덕행위 ▲공금횡령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 신문은 또 金正日의 외유가 중공및소련 의사들로부터 완치불능으로 선고받은 지병치료와 요양을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그러나 이 신문은 金正日의 지병이 외유구실을 찾기위한 가짜진단인지여부는 밝히지않았다。

한편 東京의 親북괴잡지「朝鮮畵報」가 지난 7월호부터 金正日의 사진을 일체 싣지않고있어 金正日을 둘러싼북괴내부의 권력투쟁을 반영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자아내게하고있다。【東京=宋孝祥특파원】

메아리

映畵法

2차대전 직후 이탈리아 영화는 로베르토·롯셀리니의 名畵「無防備都市 로마」로 부흥이 시작되었다。이 영화를 만들때 처음에는 어떤 백작부인이 돈을 댔지만 중도에서 돈이 떨어져 小道具소차 빌 예산이 없어지자 출연자인 마리아·미치등이 자기집 가재도구를 들고나와 촬영을 계속했다。대부분의 장면을 세트대신 로케이션으로 채웠다。戰後 폐허에서 촬영용 필름을 구할수가 없어서 쓰다남은 필름의 토막이나 불량품으로 버린것을 주워모아 찍었다。이렇게 만든것이 映畵史가 大書特筆하는 네오레알리즘의 기념비적 작품이되었다。

50년대말 침체한 프랑스 영화에 새바람을 일으킨것은「누벨·바그」라 불리는 젊은 영화인들이었다。그중 프랑스와·트뤼포는 26세때 친구들한테서 돈을 모아「레·미스롱」이란 단편영화를만든데서 출발했고 아녜스·바르다는 역시 26세때 몇푼의 돈을 안들이고「라·포앵트·쿠르트」라는 영화를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사형대의 엘리베이터」는 루이·말이 25세때 만든것이지만 이런 새로운 영화가 흥행이 된다싶자 많은 청년들이 플로트하나만 가지고 자본가를 찾아 다녔고 자본가들은「누벨·바그」란 이름 하나에 돈을 투자했다。

70년대초 미국에서는「러닝·트린」라는 영화가 나왔다。대학을 갓나온 젊은이들이 만든 16mm의 黑白영화로 히트를 하자 35mm로 만들어 전국에 돌렸다。당시 할리우드에서의 영화 한편의 제작비가 평균 4백만달러인데 비해 이 영화는 단돈 7만달러를 들인 것이었다。제작비에 비한 관객동원수로는「바람과함께 사라지다」를 능가한다고까지 말이나온 영화였다。

일본의 영화잡지「키네마旬報」가 시상하는 영화상에서 작년에 감독상·작품상을 탄것은 고구리(小栗康平)라는 신인이 만든「泥河」라는 작품이다。베니스영화제에도 입선해서 일본 영화의 수준을 크게 올렸다고 평판이 대단했던 이 작품은 명배우를 쓰지않고 로케이션을 주로 해서 만든 黑白영화로 일본영화 平作의 제작비에 10분의1도 못미치는 4천만円으로 완성한 것이다。

우리나라 영화의 수준이 문제가 된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國産」이란 레테르를 붙여서 아직도 창피한것중의 하나가 영화다。왜 우리 영화가 국제영화제에 나가서 제대로 상한번 못타느냐 하면 지금까지의 映畵法에도 죄가있다。제작을 독점하다시피한 몇몇 영화사가 흥행위주의 영화나 만들고 外畵수입쿼터를 따기위해 형식적인 양만 채우고하는데서부터 우리 영화는 빛나가기 시작한것이다。이에 대한 반성이 생겨 지난 10월 映畵法改正案이 閣議를 통과했다。새映畵法의 主眼點은 지금까지 영화제작은 허가된 몇몇 제작회사만 할수있던 것을 등록제로 바꾸어 自由化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영화도 새로운 활기를 기대해 볼수 있을 모양이다。큰 자본이나 시설 없이도 참신한 젊은 영화인들이 카메라 하나를 빌어 나서게 될것이다。큰 배우 안쓰고 세트 촬영을 안하더라도 한국적 네오레알리즘이나 한국적 누벨·바그의 開花가 불가능하지 않을것이다。필름은 高感度化하고 조명기구같은 機械가 간편화됨으로써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카메라를 쥘수 있다。

그러나 閣議를 통과한 정부의 映畵法改正案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있다。이미 국회에 나와있는 金泰洙의원의 案도 小委에 넘겨져 미루적거리고 있다。이대로면 국회의 이번 會期에 통과되기가 어려우리란 전망들이다。映協등에서 잇따라 改正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있는데도 映畵는 할일 없을때나 보는것이라는 말인지, 전혀 신경쓰는 기색이 없다。이번 會期를 넘기면 또 한해가 늦어진다。法改正이 한해 늦어질때 우리영화의 발전은 한해만 늦어지는것이 아니다。病이 한해 더 곪으면 한해만 더가지고 고쳐지지 않는다。

法이 통과된후 施行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改正案에 있는 預託金制는 자칫 法정신을 흐릴 우려가 있다。영화 제작자는 일정한 액수를 맡기게 되어있는데 일설에는 이 액수가 1억원쯤 될것이라고한다。그렇다면 自由化는 의미가 없다。제작자의 난립을 막고 不渡를 방지하기위한 것이라지만, 亂立은 자유경쟁에 맡겨야하고 不渡는 영화계에서만 걱정할일이 아닌것이다。

金聖佑 <編輯委員>

◇닉슨과 보브·호프의 웃음대결 코모양이비슷한 리처드·닉슨前美대통령과 코미디언보브·호프씨가 7일 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디너파티에 참석、서로마주보며 웃고있다。【뉴욕8日UPI聯合】

史上최초 電子소설發行

★加서 16분만에 配布완료

한 캐나다전자정보회사는 최근 사상 최초로 컴퓨터에 쓴『전자소설』을 발행、16분만에 전국의 연결망을 통해 개인컴퓨터 가입자들에게 배포했다고。

소스·텔리컴퓨팅社는『눈먼 파라오王』이란 이름의 2만단어짜리 서스펜스소설이 이틀반동안 소설가 버크·캠벨씨에 의해 집필된후 그날중으로 편집과 교정이 완료되어 컴퓨터가입자들에게 서비스되었다고 밝혔는데 이 회사의 한 대변인은 이와같은 소설은 세상에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자못의기양양했다는것。

소스·텔리컴퓨팅사는 8백가지의 정보·통신서비스를 개별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있는데 그중에는 전자우편 컴퓨터회의 전자쇼핑과 항공예약등이 포함되어 있다고。【워싱턴=UPI】

海外토픽

★英일부大學강사들이 學點미끼섹스要求

영국의 일부대학강사들은 학점을 잘주겠다고 꾀어 여학생들에게 섹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영국학생연맹의 한 간부가 폭로。

샤론·매클린양(22)은 최근 켄트주 마게이트에서 열린 연맹회의에서 매주 이같은 부도덕한 선생들의 성적희롱에 대해 불평을토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다면서 연맹이 영국대학교의 여학생처우에관한 조사에 착수할것이라고밝혔다。【런던=聯合】

★學校성적나쁜데화풀이 아버지가아들물어

자녀교육에 극성스런 프랑스의 한 아버지는 8살난 아들 다비드군의 학교성적표가 나쁜데 불끈、아들의 손목을 물어 힘줄을 몹시 상하게 했다고。

제라르·콩세일(36)은 학교장으로부터 아들이 문제가 많으므로 다른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 좋을것같다는 의견서가 붙은 통지표를 받은후 아들을 목졸라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이웃사람들이 전했는데 아들은 의사로부터 40일간 입원하도록 명령을받았다고。【파리=聯合】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美入養 한국어린이 「成年」의 오늘은…

피보다 진한 愛情에도 뿌리향한 執念은 못떨쳐

【美西部일원=林鍾乾기자】

생각은 미국인이지만 외모는 여전히 한국인이다。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미국化되었다지만 뿌리에 대한 애착은 어차피 生來的이다。

종족관념을 초월하는 인류애의 표현으로서의 국제입양, 노력한대로 성취하는 사회토양위에 뿌려진 국제입양은 그러나 대부분의 입양자들에게 자기존재에 대한 번민의 날들을 갖게하며 이같은 신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뒤에야 입양은 본래의 뿌리를 내리게된다。

한국내 국제입양사업의 효시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사업을 시작한지도 벌써 26년。성년을 넘어 중년을 향해가고 있는 국제입양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미국 서북부의 워싱턴州 시애틀市, 오리건州 포틀랜드市 세일럼·유진市,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및 로스앤젤레스市일대에서 어엿한 미국인으로 꿋꿋이 살아가고있는 성년입양아들을 찾아 만나봤다。

워싱턴州 시애틀市 중심가에있는 트렌퍼·슐레이브회계 사무실에서 만난 공인회계사 티모시·흄씨(25)는 백인 혼혈아였다. 시애틀·퍼시픽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흄씨는 79년대학졸업과함께 어렵다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현재 이 회사에 취직했다. 두살때인 1959년 입양되어 미국에 왔기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채 성장했다. 피부색이 약간 흰것과 눈매의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땅딸막한 체구가 영락없는 한국사람 그대로였다.

오리건州의 그랜드패스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교때 『우수한소수민족 학생』으로선발돼 동부의 명문 펜실베이니아 대학에로의 진학길이 열렸으나 부모곁에있고싶어 시애틀 퍼시픽대학으로 진학했고 직장도 시애틀에서잡고 있다고 말하는 흄씨였다.

지난77년 홀트아동복지회가 주선한 성장입양아 모국방문단일원으로 한국에 왔었다는 흄씨는 그때 비로소 입양이 무엇인가를 알게됐다고 말한다. 그때이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돼 신문에 나는 한국관계기사를 눈여겨 읽고 있다는 흄씨는 南北韓간의긴장에 관한 기사를 읽을 적이면 나처럼 불우한 사람이 다시 생겨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 가슴아프다고 말한다.

자신의 生母에대해 생각해본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흄씨는 『나를 낳아준 분인만큼 만나보고싶다』면서도 『만나더라도 어딘가 낯설은 기분이 들것 같다』고 덧붙인다. 『어머니를 만나 알아보고싶은것은 내 얼굴이 얼마나 어머니를 닮았느냐는 것과 나말고 다른 형제가 또 있느냐는 것』이라고 흄씨는 말했다.

그는 또 『탄생이란 시작에 불과할뿐』이라고 말해 生我이상으로 養我를 소중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시애틀에서 약7백km떨어진 고향 그랜드패스에 있는 양부모를 한달에 한번씩은 꼭 찾아뵙는 효자이기도 했다.

시애틀에서 만난 또 다른 성장입양아는 순수 한국혈통의 타마라·슈마츠양(22·한국명 김정아)。몬태나州 플래트헤드고교시절 학생회장을 했다는 이 활달한 아가씨는 우연하게도 흄씨와는 대학 동문이었다.

현재 시애틀시 건축소유자및경영자협회 경리담당직원으로 일하고있는 타마라양은 법과대학에진학(미국서는 대학4년과정을 마친후 법과대학에 입학함), 정치학을 전공하겠다고 포부를 말한다. 생후9개월의 젖먹이로 입양됐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 기억도 없지만, 4남매가 모두 한국계 입양아이고 그중에는 [illegible] 동생들도 있을뿐아니라 홀트후원회회원인 아버지 해러·슈마츠씨(59)가 한국에관한 슬라이드를 종종 보여줘 한국이 자기에겐 가까이에 있다고 말한다.

부모가 독일계여서 독일음식을 잘 만든다는 타마라양은 그러나 부모가 가끔씩 자녀들을 한국식당으로 데리고가 불고기와 김치에 맛을 들이게해줬다고말한다. 집에는 6세때 양부모가 서울서 가져다준 한국한복이있는데 앞으로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딸에게 물려주겠다면서 밝게 웃었다.

가정없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을 갖게해준다는점에서 입양은 훌륭한것이라고 말한 타마라양은 『하나님 앞에서는 민족이없다』는말로 자신의 가정분위기를 설명했다.

오리건州 포틀랜드市의 월터·E·헬러·웨스턴회계사 사무실에서 공인회계사로일하고있는 칼·퀴니그씨(25·한국명 박봉수)는 88년 서울올림픽때 한국을여행하기위해 5천달러를목표로 저축하고있는 중이라고말했다.

오리건주립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퀴니그씨는 대학시절 육상선수로 활약했다고 말한다. 자신의 넓이뛰기 최고 기록은 24피트인데 아는 미국 최고기록 29피트에는 못 미치지만 최소한 오리건州에서는 아직도 최고 기록일 것이라면서 쾌활하게 웃는다.

백인혼혈인 퀴니그씨는 생후10개월이던 1957년에 입양됐는데 모두가 입양아인 로버트·퀴니그씨(65) 부부의 1남4녀중 외아들이다. 위로 한국계의 누나 라리(29·한국명 최순자)와 아래로 한국계 라바이나(24) 미국계 로나(22) 등 두 누이동생이 있다.

말을 하면서부터 자신이 입양아임을 알았다는 퀴니그씨는 『그것이 정상인줄 알았으며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기억을 더듬는다.

어쩌다 만나는 한국여성을 통해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전혀 상상도 되지않는다고 말하는 퀴니그씨는 『아버지야 구름처럼왔다간 사람이겠지만 뱃속에 10개월동안 품어준 어머니를 만난다면 맘에서 우러나는 대화를 나눌수 있을것 같다』고 아련한 母情을 그리워했다.

퀴니그씨의 누나인 라리양은 오리건州都 세일럼에 있는 메리·에이어국민학교 교사로 재직중이었다.

1956년 3세때 입양돼온 라리양은 29세의 노처녀였지만 자신의 양부모도 자기보다 더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는다고 수줍어했다. 2주전 오리건州 우드번에 있는 고향집에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편찮아 염려된다면서 『나이는 65세밖에 안되셨지만 우리 4남매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長女답게 말했다.

오리건州立사대를 졸업한 라리양은 오리건大 교환학생으로 지난74~75년 일본와세다 대학에서 연수를 한적이있고 이때 틈을타 3주동안 한국을 방문했었다. 당시 라리양은 홀트아동복지회에를 들러 자신의 뿌리를 찾기위해 친권포기서를 모조리 뒤져봤으나 끝내 찾지못한채 발길을돌렸다고 말한다.

교사경력 6년의 라리양은 이 학교 3학년담임교사인데 라리양이 한국계임을 알고있는 이학교 교사와 어린학생들은 한국에서온 라리양의 손님을환영하기위해 수업을중단한채 강당에모여 환영행사를 베풀어주었다.

오리건州 올바니에서 만난 수전·폭스부인(30)은 고등학교 졸업하던해에 오리건州의 『낙농의 공주』로 뽑힌 진짜미녀였다. 시카고에서열린 『낙농의 공주』 본선대회에서 『미스상냥』賞을받았다는 폭스부인은 올바니에있는 논트웨스트천연가스회사의 홍보담당매니저, 홀트아동복지회 미국사무소 이사겸 서기이기도한 그녀는 최근에는 아내의 분만을 남편이 도움으로써 분만의 고통을 덜고 가정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라·마즈운동의 지역책임자로, 복지모금단체의 하나인 유나이티드·웨이의 지역홍보담당으로 직장생활틈틈이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폭스부인은 라·마즈분만법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입양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한 아기를 입양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기다리고 애태우는 순간들은 바로 産苦를 같이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이죠』라고 말한다. 賢母良妻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들려준 폭스부인은 행복과 불행이 모두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믿고있는 성실한 주부였다.

캘리포니아州 버클리에있는 사이몰로·토미스社라는 컴퓨터회사의 총무담당 멜러디·캐스퍼슨양(23·한국명 박옥분)은 명문 버클리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재원. 순수 한국계인 캐스퍼슨양은 자그마한 체구에 눈매가 아주 다부졌다.

◇成長중 한번쯤 신분위기도 낯선 양부모의 품에 안긴 입양아들。그들은 성장하는동안 신분의 위기를 한번쯤 거치면서 어엿한 미국인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외모·文化의 差異를 극복 高校·大學서 뛰어난 成績

대학시절 한국가정에서 하숙을 하는 등 한국에대해 다소 아는 편이라는 캐스퍼슨양은 작년8월 성장입양아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어려서는 별로 한국에대해 관심이 없었으나 요즘와서 자주 한국을 생각하게 됐다는 캐스퍼슨양은 그것은 오로지 훌륭한 양부모를 만난 덕분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알게해준 은혜를 양부모에게 돌렸다.

요즘 가끔씩 불고기와 김치를 사다먹고있다는 캐스퍼슨양은 친구들과함께 샌프란시스코에있는 한국음식점 고려정에 한달에 두번꼴로 김치를 맛보러 간다고 했다.

버클리대학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학교여서 좌경데모도 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한때 反韓데모도 잦았지만 지금은 시들해졌다고 전한 캐스퍼슨양은 『내앞에서 한국을 욕했다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조그만 주먹을 불끈쥐며 활짝웃는다.

캘리포니아州都 새크라멘토에서 내과전문의로 개업하고 있는 크리스토퍼·스미드씨(30)는 키가 훤칠한 흑인혼혈. 78년 데이비스市에 있는 명문 캘리포니아대를 졸업한 스미드씨는 『수석졸업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할일이 없어서 공부만 했다』고 슬쩍 받아넘긴다.

전기기술자인 양부모 윌리엄즈씨(65) 부부는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서 살다가 [illegible]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해왔는데 [illegible] 의사라곤 자기가 처음이니 부모의 은혜와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한 것같아 뿌듯하다고 말한다.

대학동창인 부인과는 79년 결혼했고 아직 아이를 두진 않았는데 자신이 누린 복을 되돌려주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자기와같은 흑인혼혈을 입양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입양문제에 대해 『국제입양은 인도적으로 숭고한 것이지만 인종적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흑인혼혈을 입양코자 하는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카렌·보이킨양(23·한국명 김가련)은 외모나 입양과정으로보아 순수한국계임이 완연함에도 서류상에는 혼혈로돼있는 특이한 케이스였다. 그래서 한때 이문제로 남다른고민도 많이했으나 이제는 모든것을 극복했다고 밝게 웃는다.

보이킨양은 5세때까지 한국인부모와 함께 산 기억이 있다. 5세되던해 어느날 또래들과 어울려 시장에갔다가 길을잃었으며 집을찾아가다가 기차를탔던것이 영영 부모와 떨어져버린 [illegible] 말한다.

끼니를 못때울만큼 가난했으나 극진했던 엄마의 사랑도 기억에 남아있고 주정뱅이아빠가 엄마를 때리던모습도 떠오른다고말한다.

이 길잃은 어린소녀가 5세때인 65년 홀트양자회를통해 로버트·보이킨씨부부에게로 입양돼, 로스앤젤레스근교의 비올라대학을 나와 지금은 자연藥材판매회사인 허벌라이프社의 상담역으로 일하고있다. 내년6월에 州정부가 실시하는 간호원자격시험에합격하면 아동 가정및결혼상담원이 되어 곤경에빠진 사람들을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2백50km떨어진샌디에이고에살고있는 제임즈·다니엘(25)·셰릴·다니엘(24)남매는 전화연락을받고 아침 6시에 집을떠나 자동차로 3시간반을 달려 로스앤젤레스로 왔다.

다니엘씨는 80년 퍼시픽·크리스천대학을 졸업, 현재 샌디에이고에 있는 크리스천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다.

셰릴양은 닉슨 前미국대통령이 나온 휘티어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사우스 웨스턴大법대에서 가정법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57년 11개월·9개월의 갓난아기때 교사인 다니엘씨(62) 부부에게 입양된 이들 한국인남매는 61년 양모가 사망하고 68년 양부가 재혼하는 가정적인 시련을 겪기도했지만 72년 계모와 이혼, 현재까지 독신으로 지내고있는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안정을 되찾았다고 말한다.

제임즈씨는 아버지에게서 인내와 사랑을 배웠으며 자신도 이를 실천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만난 바바라·사까다니씨(25)는 로스앤젤레스의 南加州대학(USC) 사회사업대학원 재학생이었다. [illegible] 양부모 에드워드씨 부부는 그녀에게 『외모만 다를뿐 너는 미국인이다. 동양인이기 때문에 안되거나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차별은 있겠지만 노력한 만큼 성취할수있다는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차별은 극복할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그같은 부친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사회사업학을 전공하는 학도로서 그녀는 국제입양의 개념을 『종족관념을 초월하여 인류애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숭고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입양해오는 아이들을 미국내 공항에서 맞아들이는 『국제공항영접단』의 일원으로 LA공항에 종종 나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바바라씨는 양부모들이 입양아를 상봉하는 광경은 언제봐도 감격적이며 3살짜리 입양아를 볼때면 22년전 자신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말한다.

80년 식품점을 하는 일본인3세 사까다니씨와 결혼한 그녀는 자기들에서 하나를 낳고 다른 하나를 입양하겠다고 말했다.

자랄수록 故國에관심… 직접 찾기까지

◇두 여동생이 좋아요 포틀레지씨 5남매중 케리(7세)와 애미(4세)는 한국계。장남 마크군(17·가운데)은 『부모님이 두여동생의 입양의견을 물어왔을때 「좋다」고 대답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다』고。

샌프란시스코남쪽 산마테오에 살고있는 로스·에드워즈씨(컴퓨터회사 부사장)는 타미양을 입양하기에 앞서 오랜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고 처음엔 두살짜리를 원했는데 두살짜리가 없어 2~4세로 여유를 줬다가 3세된 타미를 얻게 됐다고 7년전의 일을 회상했다.

『그때 두살짜리를 고집했다가 타미를 얻지 못했더라면 어쩔뻔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타미양의 머리를 쓰다듬는 에드워즈씨는 타미를 『남을 돕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한다.

타미때문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됐다는 에드워즈씨부부는 몇년전 샌프란시스코에서열렸던 한국미술5천년展때 타미와함께 구경을 갔었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모를줄 알았던 타미가 한국에도 그렇게 훌륭한 예술품이 있느냐고 놀라워하는 모습에서 구경시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에드워즈씨는 앞으로 스탠퍼드대학의 한국인유학생을 집으로 초대, 타미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포틀랜드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엘런·젠센씨는 한국계 4형제를 입양했는데 이중 폴(16) 데이빗(14) 피터(13)등 셋은 친형제간인점이 특이했다. 젠센씨의 4형제는 축구와 태권도로 체력을 단련하면서 건강히 자라고있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내 一生이 풍족

네명을 자녀로 키운 에델·맥키언女史

◇낳은情 이상의 母情 한국인 4남매를 입양, 모두 훌륭하게 가르쳐 사회에 내보낸뒤 혼자 여생을 보내고있는 에델·맥키언여사(72)。『자녀를 입양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생이 더욱 풍족했다』고 말하는 맥키언여사의 말속에는 피보다 진한 母情이 담겨있었다。

에델·맥키언여사(72)는 4명의 한국자녀를 입양, 모두 훌륭하게 키운뒤 가정을차려 내보내고 지금은 혼자 오리건州 세일럼의 농장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다.

맥키언여사는 자기집벽을 가득 장식한 네자녀와의 아름다운 추억을담은 사진틀속에 묻혀살고있었다. 나이에비해 정정한 맥키언여사는 『나의 일생이 풍족했던것은 그들 네자녀 때문이다. 내몸에서 애를 낳았더라도 이같이 풍족하진 못했을 것』이라면서 얼굴가득히 웃음을 지었다.

남편 알프레드·맥키언씨와 68년 사별한 맥키언여사는 『남편이 살아 이같은 축복을 같이 나눌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했다.

자녀들이 모두 집을나가 외롭지 않느냐는 물음에 『언제까지 자녀들을 데리고 살수는 없는것이 아니냐』면서 『무엇보다 나가서 성공해 잘 살고있으니 기쁘고 나도 나만의 인생을 가질수있어 좋다』고 말했다. 어느 한구석에도 외로움의 그림자는 없어보였다.

『때론 적적할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이 종종 전화와 편지를 보내와 적적함을 달래준다』고 말하는 맥키언여사는 『그러나 사내들은 편지를 자주 안쓰는 편』이라면서 눈을 찡긋한다.

맥키언여사는 장남 존(27)을 56년에, 장녀 메리(26·한국명 김옥순)를 59년에, 차남 제임즈(25)와 차녀 마다(22·한국명 박영애)를 64년에 각각 입양했다. 모두 순수 한국혈통이다.

"큰애가 한국駐屯할때 訪問했었죠"

공군에 입대한 존은 현재 유타州의 한 공군기지에서 통신기술병으로 복무중인데 그는 지난 80년8월부터 1년동안 한국복무를 자원하기도했다.

메리는 78년 오리건치과대학을 졸업, 현재 포틀랜드의 병원에서 근무하고있고, 소아마비인 제임즈는 연방산림청의 산림감시원으로, 오리건주립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마다는 포틀랜드의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있다.

4남매를 모두결혼시킨 맥키언여사는 딸들의 결혼예복을 손수 만들어 입혔을 만큼 70고령에도 불구하고 장남을만나기위해 올해도 두차례나 유타州까지 차를몰고갔다왔을 정도의 건강과 지극한 모정을보여주었다.

장남 존이 한국에서 복무할때 한국을방문하기도 했다는 맥키언여사는 버스에서 승객들이 자신에게 자리를양보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존이 한국재복무를 신청해놓고있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갈수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있었다.

맥키언여사는 『자녀들에 대한 가정교육은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친것이 전부였다』면서 『송아지를 길러 어미소가 되어 새끼를 낳으면 약속대로 기른 아이에게 새끼를 팔아 학비와 용돈을 주었다』고 한 예를 들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살아온길』이었다고 말한 맥키언여사는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지 못한것과 한국아이를 좀더 입양하지 못한것』이 지금와서 생각하면 가장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농아학교 교사로 은퇴한 맥키언여사는 메리가 미국에 오던날부터 엄마를 무척 따라 직장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어김없이 문밖에 나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회고하면서 그러면서도 친엄마에대해 가장 알고 싶어한 것 역시 메리 였다고 말한다. 고교시절 전교학생회장을 하는등 활달하고 공부도 잘했다고 막내딸 [illegible]을 칭찬한 맥키언여사는 대학을 [illegible]업성적도 우수해서 오리건大총장으로부터 특별편지까지 받았다고 자랑이 대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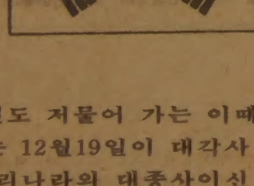
집과 30에이커의 농장을 네자녀에게 4등분해서 나눠주겠노라고 결정했다는 맥키언여사. 낯선 [illegible] 떠나보내면서 시야에서 자동차가 보이지 않을때까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도널드夫婦는 두딸을 업어서길러

◇온 家族이 태권도를 엘런·젠센씨의 4남매중 셋은 친형제간。태권도와 축구로 몸을 단련하여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포틀랜드에서 소아과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도널드·포틀레지씨(46) 부부는 7세된 케리와 4세된 애미를 양녀로 맞아 들이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두 딸에게 한국에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양육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목표라면서 두딸의 가운데 이름을 김·정이라고 한국성으로 한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원출신의 부인 주디여사(44)는 애들을 양육하기위해 간호원도 그만뒀다고했다. 그녀는 케리가 처음 입양돼왔을때 하도 심하게 울어 크게 걱정이되던중 한국아이는 업어기른다는 한국인친구의 얘기를 듣고 한동안 업어길렀다면서 파안대소.



온 누리에게 卍

우리 교포 교민 여러분

임술년도 저물어 가는 이때 연일 정진중이시리라 믿사오며 돌아오는 12월19일이 대각사 창건주 김평등심 영가 49재를 맞아 우리나라의 대종사이신 활산 성수 화상님을 모시고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법회를 개최하오니 괴로움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중생 무릇 참례있으시길 앙망합니다.

○창건주 보살님의 뜻
온세게사람우잇서인연잇면
갓치참선공부할엿고절을함
"온 세계 사람위해 인연있으면 같이 참선 공부할려고 절을 지음"

곳 : 한인회관 (20 MOBILE DR)
때 : 1982년12월19일(일요일) 오후3시

종교관

안심하고 입명하자는데 있는것이니 너 나에 집착해 가지고 어느때 평온한 마음을 가지겠읍니까?

모든것을 초월해 40여년을 수도에 전념하신 스님의 말씀을 듣게 될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종교 타종교를 떠나 삶의 길을 열으시기 빌어 앙망합니다.

대각사 혜관스님 합장
자비의 전화 : ☎ 463—8998

性犯罪 고민 日에 「童貞동맹」

2萬여會員이 '늑대로부터 處女를 보호하자'

◇일본은 청소년의 性犯罪를 예방키위해 터키湯등 퇴폐적인 유흥업소의 허가를 억제하는 條例를 공포시켰다. 사진은 신주꾸(新宿)의 유흥가.

신나와 대마초를 흡각제를 피우다가 경찰에 의해 선도된 중고등학생의 수는 4만2천여명에 이른다.

東京都는 청소년 정화대책의 하나로 최근 신주쿠(新宿)·이케부쿠로(池袋) 등 副都心地에는 터키湯이나 포르노영화관등의 섹스產業의 허가를 일체 해주지 않기로 條例를 고쳤다.

『순진한 처녀를 남자들로부터 보호하자』는 口號를 내걸고 발족한 이 童貞同盟은 …

와세다(早稲田) 대학에 본부를 둔 이 童貞同盟은 …

이 모임의 간사장인 이시다(石田誠·早稲田文學部3년·22)군은 …

【東京=宋幸錫특파원】

특파원 노트

伊는 「反마피아」 총궐기

갈수록 威脅늘어… 政府·敎會·勞組등 분노

◇마약밀매 수사관이 압수한 마약과 거래에 사용된 돈을 내보이고 있다.

【金一鎭기자】

中東에 탱크·헬機까지 密賣

소탕맡은 將軍부부도 暗殺

마약거래, 매춘, 테러등 으로 악명높은 마피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범죄조직이 암약하는 이탈리아에서 세계최대의 불법무기거래조직이 적발되어 다시한번세계를 놀라게 하고있다.

이탈리아의 수사관들은 여러해동안 수백만개의 무기를 中東에 보내주고…

이번 사건으로 헬크와기 관총등 각종불법무기가 마피아의 마약원료 결제대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에 들어가고있는 마약의 60%는 마피아가 경영하고있는 시실리섬의 금공장에서 정제되고 있다.

세계의 社會面

세계최대의 軍事情報시장에

56國 400여명이 神經戰

워싱턴 武官파티는 「紳士스파이」大잔치

미국 워싱턴市에는 세계각국에서 모여든 4백여명의 무관들이 사교계를 이루고 있다.

【外紙】

◇워싱턴의 한 파티에 참석한 각국 무관들의 군모.

올 가을 시즌만 11명死亡…49年이후 247명

히말라야 등반 희생 늘어가는

히말라야산 등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제 막 끝난 네팔의 가을등반시즌에 11명의 산악인이 숨진사실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카트만두=外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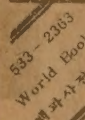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85>

부드러운 겨울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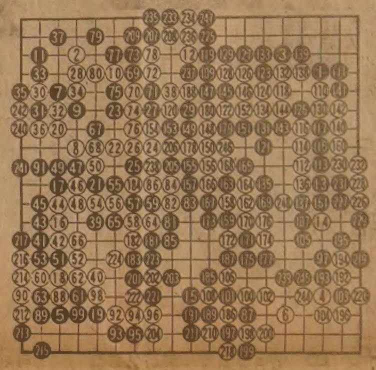


第14期 名人戦 挑战者决定리그

第4局 總譜 (각5시간·덤5집반) 284手完

白(4段) 姜 勳(2勝0敗)

黑(4段) 李相漱(1勝 1敗)



姜 4段 단독선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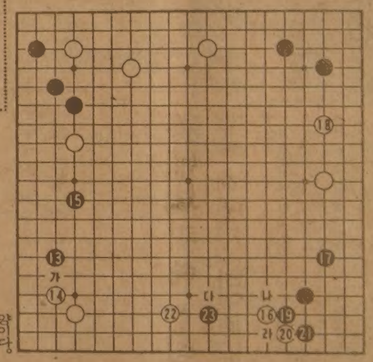
【一凡】

第14期 名人戦 挑战者决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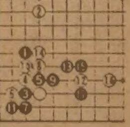
第5局 第2譜 13~23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 奉 洙(청판)

黑(7段) 盧 永 夏(1敗)



常識과 非常識



【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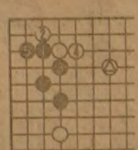
第14期 名人戦 挑战者决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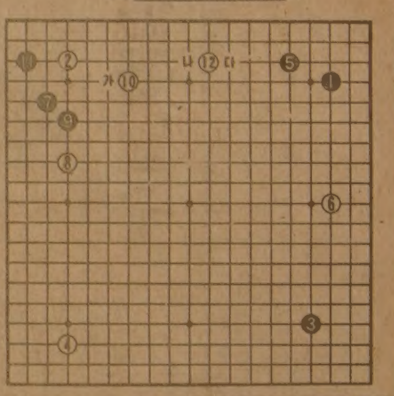
第5局 第1譜 1~12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 奉 洙(청판)

黑(7段) 盧 永 夏(1敗)

新舊折衷 포석





【一凡】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

호남향우회 연말파티

향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는 세모의 계절입니다. 향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괴로웠던 일, 아쉬웠던 일들을 세월속에 묻어 버리는 망년의 기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12월 18일(토) 오후 7 시
장 소 : UKRANIAN CENTRE 2층
297 College St. (at Spadina) Toronto, Ont.
회 비 : 1인당 $25
특별출연 : 인기가수 송 대 관(76,77년 2년간 가수상 수상)
사 회 : 박상선(다년간 무대경험)
밴 드 : 권순근과 그의 악단
연 락 처 : ☎ 651-8835(장영대) ☎ 271-0166(송남성)
621-2059(송기선) 255-4532(김병선)
773-5531(강기원) 677-1888(마보훈)

경품 안내
특등 오메가 남자용 고급시계 (8백불 상당)
1등 밍크목도리(4백불 상당)
2등 1년분 비데오 테잎 회원권 (520불 상당)
3등 벽시계(150불 상당)
4등 대형 보온전기밥솥(150불 상당)
5등 어린이용 자전거(100불 상당)
6등 남자용 007가방(120불 상당)
7등 액자 1점(100불 상당)
＊행운상 나전칠기자개 커피테이블(1200불 상당)
＊아차상 남·녀 손목시계 각각 1점(200불 상당)
＊기타 전화셋, 전기밥솥, 썬글라스, 손목시계, 어린이용스케이트, 인도어골프 1년회원권, 전기주전자, 전기밥솥 소형, 인삼 1Box, 장미표 쌀 10포대, 샘표진간장 2갈론, 삼양라면 2Box등 다수의 상품

호남향우회 회장 장 영 대

高校교사 不穩서클 적발

北傀방송 청취·容共국가건설 企圖

9명구속

群山서 五松會결성…방송국課長도 가담

◇李光雄

◇朴正石 ◇黃潤泰 ◇李鉒烈 ◇嚴澤洙 ◇田成源 ◇蔡奎求 ◇趙成湧 ◇姜庠基

전북도경은 8일 群山모고교 교사 李光雄(42·群山市新豊洞990의49) 朴正石(37·裡里市南中洞1街540의39) 田成源(27·전북沃溝郡大野面山月里) 嚴澤洙(30·群山市羅雲洞우진아파트11동306호) 李鉒烈(28·裡里市 馬洞 혜정아파트11동505호) 黃潤泰(30·群山市羅雲洞주공아파트2단지7의502호) 姜庠基(35·裡里市永登洞535의26) 蔡奎求(30·群山市京岩洞658)등 8명과 모방송국방송과장 趙成湧(45·서울城北區敦岩洞19의332)등 9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불온활동에 동조해온 高完坤(35·群山市京場洞47의77) 高桓圭(29·群山市助村洞789의5) 朴正植(27·群山市京岩洞572의241)등 같은 고교교사 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죄질이 가벼운 安春基씨(27·全北全州市西鶴道德里194)를 훈방조치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북괴방송청취용 TR수신기등 3종 4점을비롯, 북괴불온전단1장과 관련서적인 페다고지등 11종 16권, 월북시인 吳모가 쓴 시집1종 6권, 기타 의식화용 서적19종 29점등35종 56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지난78년8월부터 각종 불온서적등을 탐독하고 북괴방송을청취,용공사회주의사상을 갖게된 李光雄은 현정권을 타도하고 용공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해서는『조직적인 테러행위를 감행할수있도록 조직화해야한다』는 신념아래 동교교사 11명을포섭, 이중 5명으로 「五松會」를조직, 『용공사회주의 국가가 실현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한 후 학생들에게『3·1운동은 폭력혁명이다』는등의 왜곡된 교육을 시키는등 좌경의식화교육과 함께 용공사회주의국가건설을 기도해왔다는것.

주범인 李는 지난80년12월부터 81년2월까지 光州사태관련 수배중인 尹漢琫(34·全南康津郡七良面冬栢里702)과 3차에 걸쳐 회합, 현정부타도및용공사회주의국가건설을위해 폭력을 불사할수있는 조직을 결성하도록 권유받고 80년4월 관련교사들과 80여회에 걸쳐 만나 北傀의 노래를 부르며『越南은망한것이 아니고 민족의 통일을 이룬 것이다』란는 좌경의식화교육을 시켰다.

李는 또 지난 4월19일 하오1시께 관련 교사들에게 4·19위령제를 빙자, 모임을 결성하자고 제의, 朴正石 田成源 李鉒烈 黃潤泰등 4명을 데리고 학교옆 장군봉 정상에 올라가 五松會를 결성, 이상적인 용공사회주의국가가 건설될때까지 계속 투쟁할것을 다짐했으며 지난2월께 교내 학생들을 선동하기위해 교지인 新岩2호에 학생 姜모군이 쓴 작품의 글부분을『현 민중은 권력과 부조리에 억압당하고 있다』고 멋대로 개작, 3천부를 학생들에게 배포했고, 5월에는 월북시인의 불온시집을 복사, 관련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노동자 불우청소년들을의식화 하기위해 야학회설립을 기도해 왔다.

朴正石은 81년4월부터 田成源등 관련교사들에게 5회에 걸쳐 북괴노선을 찬양하고 수업시간을 이용, 3학년생 1백20명에게『자유가 없을때는 저항으로 투쟁해야한다』는등 폭력혁명을 선동했으며 이 기간동안 동교 졸업생들의 이념서클인 파스·코리아나, 엘피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좌경의식화 교양을 시켜왔다.

한편 田成源·李鉒烈·黃潤泰·姜庠基·蔡奎求·嚴澤洙등은 주모자인李光雄과 朴正石으로부터 좌경의식화교육을 받고 북괴및 국외 공산계열의 노선에 찬동하고 五松會 결성에 적극 찬동했으며 방송과장 趙成湧은 群山모고교교사로 재직중이던 지난78년4월 李光雄과 朴正石에게 불온서적 탐독을 권유하는등 좌경의식화교육을 시켜오는 한편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北傀및 국외공산계열을 찬양, 선동하는 언론을 행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지난7월20일 하오6시40분께 全州市에서 群山으로가는 직행버스안에서 한 승객이 불온시집「별난서울」의 복사판 1권을 주워 경찰에 신고해와 일망타진됐다.

全北道교육감 警告

문교부는 8일 群山모고교 五松會사건과 관련、柳在宗전북교육감을 경고조치했다.

학무국장등 견책 校長·校監은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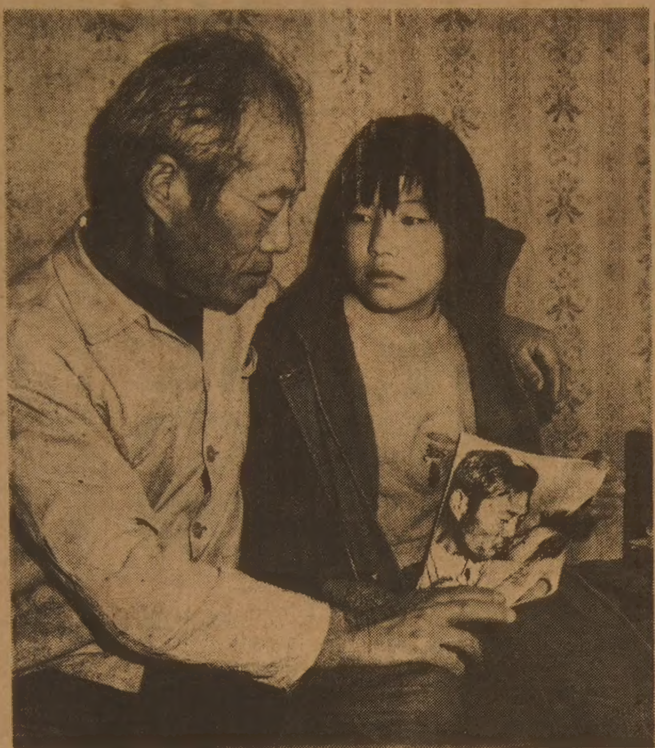
【全州】전북도교위는 8일 五松會사건과 관련,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孫顯徹학무국장과 吳滋平중등과장을 견책하고 金□哲 담당장학사를 감봉조치、朴文□ 전중등과장은 경고및 인사조치했다.

群山모고교 재단이사회도 이날 이사건과 관련, 감독책임을 물어 金在圭교장과 소容文교감을 파면조치하고 학교정상화를 위해 孫俊植교무주임을 교장직무대리로 발령했다. 【全】

女高는 마쳐줘야 할텐데

71년 淸平湖버스慘事 80명水葬…「기적의 아기」 鄭明淑양

엄마가 포대기에 싸 窓밖에 던져… 지금 國校6년


◇鄭씨가 국민학교6학년으로 성장한 딸 明淑양과함께 11년전 버스사고때의 「기적의아기」 사진을 들여다보고있다. 【李基龍기자 찍음】

【加平=朴珍列기자】71년5월11일 상오8시10분 경기영5173호 시외버스는 淸平湖를 끼고 달리다가 운전부주의로 호수에 추락, 운전사와 승객 80명이 수장됐다. 그러나 한사람이 살았다. 「기적의 아기」 鄭明淑양. 당시 생후73일이었던 鄭양은 버스가 물에 잠기는순간 죽음을 예감하고 창문을 깨고 아기를 포대기에 꽁싸감 물속으로 던져버린 어머니 朴貞順씨(당시36세)의 기지로 옛날이야기처럼 생명을 건졌던것. 당시 「기적의 아기」이야기는 추락사고가 해방후 최대규모인데다가 극적 요소까지 겹쳐 온국민의 가슴을 때렸다. 그로부터 11년. 鄭양은 지금 국민학교 6학년에 다니는 건강하고 생각이 깊은 소녀로 자라있다.

鄭양은 당시 어머니 朴貞順씨의 품에안겨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아버지 鄭榮和씨(60·경기加平郡雪岳面黑安里627)를 면회하러 가던길이었다.

사고는 순식간에 비명소리도없이 일어났고 비극적인 현장은 목격자도 없었다. 버스가 빠진자리에 맴도는 소용돌이 옆에 鄭양을 감싼 포대기만 둥둥 떠 있었을 뿐이었다.

이때 우연히 모터보트를타고 현장부근을 지나던 李應道씨가 포대기를 건져올려아기를구했고 이어 버스참사소식이 전국민에게 알려지게되었다.

사고현장은 淸平댐에서 1·5㎞상류쪽 커브길아래로 수심이 20m가 넘는 곳.

아기의 기적은 곧 온국민의 자살을 때렸고 굳은 법창도 열게했다. 당시 무면허의료행위로 구속됐던 鄭씨사건을 맡았던 당시 서울지법 鄭相鶴판사는 어머니를잃은 기적의 아기에게 보석허가에이어 집행유예로 아버지를 돌려보냈다.

"우리엄마 훌륭한 분"

法도 관용、收監아빠 풀어줘

기적에는 온정이 또잇달았다. 당장 젖굶게된 鄭양의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淸平에 살던 李順任씨가 석달동안이나 친딸처럼 젖을먹여주었고 그뒤엔 서울에사는 김윤분씨(56)가 데려다 세살때까지 길러주기도했다.

이렇게 자라난 鄭양은 성격이 활달치가 못하다. 일찍 엄마를 잃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鄭씨는 그래서 아무리 잊으려해도 그날의악몽이 잊히지않고 딸이 더욱 애처롭다고 말한다.

鄭양위로 두딸까지 혼자키우자니 어려움도많고 논·밭이란곤 한뙈기도 없이 소두마리를 키우며 살고있는 鄭씨는 그러나 18년간 살아온 정든 이웃을 떠나기도 싫어 그곳에서 눌러 살고있다.

『두번 태어난것이나 다름없는 저애를 고등학교라도마쳐주어야할텐데…』鄭씨에게는 그럴 자신이 없어 목이메었다. 사고현장을 지날때면 지금도 눈을 감고 다닌다고 했다.

『엄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鄭양은 언제 슬펐었던가싶게 또렷또렷하게 대답했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몫까지 합쳐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때 그사람

醫藥분업、異見 못좁혀

2차協業추진위 年內小委구성、論議계속

보사부는 8일 2차의약협업추진위원회(위원장 李斗鎬보사부기획관리실장)를열고 木浦, 報恩, 江華등 2종의료보험 2차시범지역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합리적 의약분업형태를 모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한채 연내 소위원회를 구성, 이문제를 계속 논의키로했다.

이에따라 의약분업형태의 결정은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방전발행주도를 통한 자율적협업 ▲약사가없는 의료기관의 외래환자투약 처방전발행 협업 ▲약사가없는 의료기관의 모든환자에대한 처방전발행을 의무화하는 완전분업 ▲제반여건의 미비점을 감안, 앞의3가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것등 4가지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木浦등지의 문제점은 ▲보험환자의 병·의원이용증가로 인한 약국운영타격 ▲의·약사의 역할분담불투명 ▲국민의료비부담과중및 과잉투약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상의 낭비요인등으로 지적됐는데 보사부당국자는『국민의 의료기관이용관행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협업방안 모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2차시범지역약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방및 조제에 관한 세부지침을 고쳐, 내년초부터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처방전의서식을 현행 20개항목에서 10개항목으로 줄이고 약국이병·의원을거쳐 약제비를 청구하던것을 직접보험조합에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환경硏 신축공사싸고 收賂·保社部의 정국職員등 구속

서울시경은 8일 보사부의정국시설장비과 직원 朴運榮(34·기술6급)、富源건설 환경연구소 신축공사장 소장 鄭來汶씨(36)등 2명을 뇌물수수및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富源건설기술상무 金武一씨(40)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恩平區佛光洞280의17에 신축중인 환경연구소의 시공및 기술감독을 맡아오면서 지난9월20일 하오 3시께『공사감독을 부드럽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장소장 鄭씨로부터 1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7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冷凍운반선 億臺밀수

釜山 金塊 34개등…5명검거 14명연행

【釜山】연말 밀수특별단속에 나선 부산세관은 금괴등 억대의 밀수품을 싣고온 냉동운반선2척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8일 부산中區中央洞 소재 화성선박소속 대양냉동 운반선 제21화성호(184톤·선장 하천준·47)를 급습, 기관실 비밀창고에 숨겨뒀던 금괴 34개(싯가 7천여만원)를 압수하고 이배 기관사 조성남씨(32)와 갑판장 곽재민씨(51)등 5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또 같은 회사소속 제33화성호(230톤·선장 이영길·25)어창 천장에 숨겨둔 일제 남녀 세이코 손목시계 4백50개와 카메라등 싯가3천만원어치를 압수, 선장 이영길씨등 선원14명을 연행、화주를 찾고있다.

세관에 따르면 제21화성호는 일본下關항에서 돌아오면서 금괴와 시계등을 기관실 밑바닥 철판을 뜯어내고 비밀창고를 만들어 숨겨들여왔고 제33화성호는 어창천장을 뜯어내고 시계등을 숨긴뒤다시용접하고8일부산항에입항했다가 이날적발된것. 【釜】

南海 湖南精油하역原油유출

養殖場피해 2억臺

【麗水】속보=지난 30일 하오5시30분께 전남 麗川郡三日邑 洛浦里 호남정유 원유하역부두에서 일본선적 씨호크호(1만1천톤급)가 유출한 기름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2억원대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이같은 피해상황은 경남 南海郡이 관내 西面 西上里등 4개어촌계의 피해상황을 조사, 해경 麗水지구대에 통보해오므로 밝혀졌다.

南海郡에 따르면 이번 기름유출로 관내 4개어촌계 소유 2백98만4백60㎡의 굴및 김양식장등이 모두 2억1천2백94만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는것.

이번 피해는 麗川郡三日邑 모도테 온동부락과 광양만일대 피조개및 굴양식장등에대한 피해도 조사중이어서 피해액은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麗】

初中高 겨울방학 18~22일사이

전국 초·중·고교의 겨울방학이 오는 18일부터 22일사이에 시·도교위별로 시작된다.

방학기간은 대부분 48일으로 가장짧은 곳은 제주도의 고등학교(36일간)、가장긴곳은 경기도의 초·중·고교(50일간)이다.

시·도별 방학일정은 다음과같다.

◇서울▲초·중교=12월20일~2월5일▲고교=12월22일~2월4일◇부산▲초=12월21일~2월5일▲중·고교=12월22일~2월1일◇대구▲중·고교=12월20일~2월5일◇인천▲초·중·고교=12월22일~2월5일◇경기▲초·중·고교=12월18일~2월5일◇강원▲초·중·고교=12월20일~2월5일▲중·고교=12월20일~2월5일◇충북▲초·중·고교=12월22일~2월5일◇충남▲초·중·고교=12월20일~2월5일◇전북▲고교=12월31일~1월31일◇전남▲중·고교=12월22일~2월4일◇경북▲초=12월20일~2월4일▲중·고교=12월27일~2월27일◇경남▲초·중·고교=12월22일~2월5일◇제주▲초·중·고교=12월27일~1월31일

5行뉴스

◆外航船員 병실서投身 숨져

【釜山】8일 상오6시30분께 부산시西區岩南洞 침례병원6층600호실에 입원하고있던 차석호씨(28·西區富民洞3가17)가 창문을 열고 15m아래의 중앙로쪽 인도로 투신, 자살했다. 【釜】

落星垈 안내인 10年 林栒烈씨

「陰德」

믿거나 말거나 "40줄에 得男"

姜邯贊장군의 영혼이 깃든 落星垈안내인 林栒烈씨(49·사진·서울鍾路區樓下洞271의1)는 姜장군에게 깊이 심취해있다. 거란을 물리친 姜장군의 슬기와 용맹을 설명하는 그를 보고 있노라면 일반관광지나 유적지의 안내인과는 눈동자부터가 다르다.

신흥종교의 신자가 교주에 대해 말하듯 한다. 이곳에 취직한후 10년을 하루같이 다른 직원보다 앞서 출근, 정한수를 떠놓고 분향해 왔다.

그뿐 아니다. 姜邯贊장군의 姜자만 들어도姜장군에 대한기록이나 얘기거리를 모조리 읽거나 수집한다. 체계적인 지식까지는 못갖췄을지라도 姜장군에대해선 어느 학자보다도이야기를 많이 할수있다. 고려사절요、고려실록등 正史는 물론 재미있는 野史도 많이발굴했다.

이런 林씨이고 보니 역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건한 자세가 생겼고, 애국이나 애족이란 단어가 입에 바른 소리가아닌 혼이 깃들어 林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창으로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수 없는일은 3대독자로서 아들을 못얻어 애태우던 林씨가 46세때 득남한것. 지금 6세인 鉉瀞군(6)은 林씨가 姜장군사당에서 빌기 5년만에 맞본 최대의 경사였다. 남이야 믿건 안믿건 그는 그의 아들이 姜장군의 음덕으로 태어났다고 굳게 믿고 항상감사하는 마음이다.

林씨가 落星垈를 안내하는 것은 독특하다. 약 40분소요되는데 이중 20분은 안국사벽화 八幀圖중 하나인「契丹에 대한 항전주장」앞에서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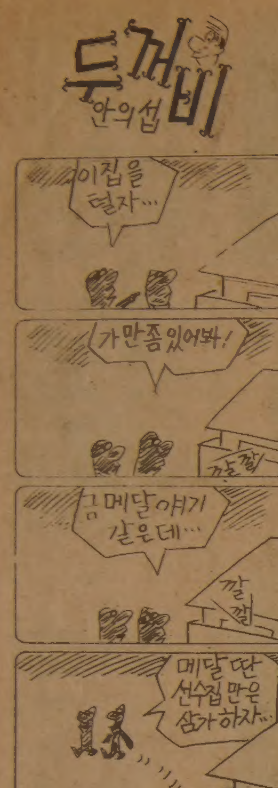
그림의 내용은 거란成宗이 40만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치자 모든 문무백관이 항복하자고 권유할때 姜장군 혼자 항전을 주장했던 고독한 싸움을 그린것. 사나이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애국도 여러가지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의 애국이 진짜 애국같아요. 그런 점에서 姜장군은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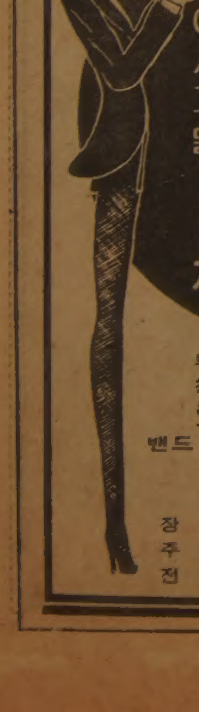
林씨는 젊은이들에게 姜장군의위엄과 나라가 어려울때 구국에 앞장섰던 애국심을 설명해줄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한쪽마음은 허전하다. 姜장군을 모신 落星垈와 주변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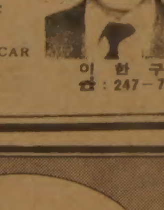
【宋大洙기자】

두꺼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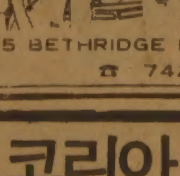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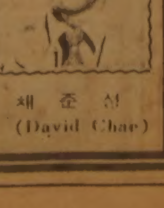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 : 247-7161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596-7311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 8900 채 준 식
〈R〉 (416)633 7892 (David Chae)

프로복싱 新人王선발戰

林夏植 이틀째도 KO勝

페더級선 3게임 連續눕혀

J플라이級

주니어 플라이급 경기에서 黃仁송와 辛甲文이 열전을 벌이고있다。辛이 판정승。

82년 프로복싱 신인왕 선발전 이틀째경기가 8일 문화체육관서 속행, 페더급1회전서 3게임연속KO승을 주니어플라이급의 3게임KO승등 헤비급1회전, 주니어플라이급 및 플라이급 2회전 44게임서 화끈한 승부가 속출했다.

첫날 柳根春(신라)을 3회12초 KO로 제압했던 林夏植(성남체일)은 주니어플라이급 2회전서 許鍾三(부산국제)을 3회1분15초만에 前허 2연속KO승를 기록했다.

잽, 훅, 어퍼커트등 다양한 기교를 지닌 林夏植은 3라운드 1분께 강력한 라이트 훅을 許의 턱에 적중시켜 첫 다운을 뺏은뒤 가까스로 일어난 許를 맹공,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다.

같은 체급의 安榮俊(곤대)은 金東玉(대전)에게 2라운드 초반 오른쪽 어퍼커트로 다운을 뺏고 3라운드 1분5초만에 KO승했다.

주니어플라이급으로서는 탄탄한 근육을 가진 安榮俊은 3라운드 공이 울리자마자 뛰쳐나와 펀치 공세를 퍼붓다가 레프트 훅으로 金의 안면을 가격, 그로기에 몰아넣고 KO승했다.

주니어플라이급의 申成一(인천송원)은 첫 라운드 초반 적중시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은뒤 2라운드 초반 한차례 다운을 뺏고 1분10초만에 KO로 이겼다.

페더급 1회전서 吳世琢(청소년), 許熙(동원), 長賢(金호)등 세선수가 모두 통렬한 KO승 퍼레이드를 펼쳤다.

◇제2일전적 (KO)

▲주니어플라이급2회전
石 2회 KO 申成一
安榮俊 3회 KO 金東玉
林夏植 3회 KO 許鍾三

▲페더급1회전
吳世琢 4회 KO 盧裕浩
尹許熙 2회 KO 李廣培
長賢 2회 KO 柳德佳

세계 女핸드볼

한국、유고에 惜敗

後半19分까지 리드…長身에 눌려

27-25

【부다페스트=聯】 한국은 8일상오2시30분(한국시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8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리그 첫날경기에서 유고에 25-27로패해 통산2패(예선전적포함)를 기록했다.

이날 蘇聯은 3연패를노리던 東獨에 15-14로역전승, 2연승으로 유고와공동선두에 나섰고 주최국 헝가리는 체코를 20-19로꺾고 1승1무를 기록했다.

한국은 9일 對헝가리전, 11일 對東獨전, 13일 對체코전등 3번의경기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날 패배로 3位圈내에 오를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한국은 이날 키가큰 유고선수들에게 속공으로맞서 후반19분까지 앞서갔으나 체력소모로 종반에 기진맥진, 2골차로 무너졌다.

京鐵 1착

統一驛傳 5구간서

제12회 통일역전마라톤대회 6일째 釜山-密陽간 87.6㎞경기서 京鐵팀은 4시간24분10초를 기록, 2위인 慶北팀(4시간27분29초)를 3분19초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간종합 순위서는 全南이 27시간23분31초로 계속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제5구간(釜山-密陽 87.6㎞) ①경기 4시간24분10초 ②경북 4시간27분29초 ③전북 4시간27분42초 ④전남 4시간28분32초 ⑤부산 4시간30분46초 ⑥대구 4시간31분22초 ⑦서울 4시간32분26초 ⑧충북 4시간33분29초 ⑨인천 4시간37분56초

◇중간종합순위(全州-密陽) ①전남 27시간23분31초 ②전북 27시간31분27초 ③경북 27시간37분14초 ④부산 27시간44분13초 ⑤대구 27시간56분57초 ⑥경기 27시간58분1초 ⑦충북 28시간5분53초 ⑧서울 28시간19분46초 ⑨인천 28시간53분22초

"아시안게임 메달 金日成父子 은덕"

北傀 보도기관들

【서울=聯】 北傀의 보도기관들은 印度뉴델리의 제9회 아시안게임과 관련, 그들이 거둔 17개의 金메달을 비롯한 전적들은 北韓선수들이 金日成과 金正日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싸운결과」라고 주장했다.

北傀보도기관들은 제9회 아시안게임의 폐막에 즈음, 그동안 北韓선수들이 거둔 메달획득숫자와 메달획득선수들을 소개하면서도 韓國이 金메달 28개를 획득하는등 종합3위를 차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北韓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시안게임 진행기간중에도 北傀의 보도기관들은 南北대결에서 韓國에 패배한 종목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한채 그들이 이긴 종목에 한해서 戰績을 소개하면서 金日成父子의 「신임과 배려에 의한 체육기술로 南朝鮮선수들을 打勝했다」고 선전, 체육분야에서의 南北대결조차 金日成父子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치졸한 작태를 연출했다.

파리등 8개都市로

92年올림픽 후보지

【파리AP=聯】 환·안토니오·사마란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는 1992년 하계올림픽대회의 개최후보지로 프랑스의 파리와 니스등 8개 도시를 발표했다. 발표된 후보지는 프랑스의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스포츠話題

러비 54年만에 慶事났네

한국, 아시아選手權서 7連覇한 日누르고優勝

◇金雄植 감독

지난 11월27일은 한국러비풋볼 54년 사상 가장 경사스런 날이었다. 이날 싱가포르 잘란·바저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러비풋볼 선수권대회 결승전서 한국은 日本대표팀을 12-9로 격파하고 대표팀을 포함한 양국 성인팀들 간의 대결에서 첫 우승을 거두었다.

日本이 러비를 시작한 것은 1912년, 이보다 14년뒤 普成專門(현高麗大)이 日本을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러비를 소개했다.

…

【金仁씀기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88>

朴婉緖 作

부드러운겨울 ⑭

"3秒 단축할수있다"

壁높은 世界水準…LA서 8強가능

◇崔允喜(左)와 劉震旗코치。뉴델리 아시안 게임 배영 2백m서 金메달을 차지한후 기쁜 표정을 짓고있다。

潛在力은 ①

「金메달코치」가 診斷하는 金메달리스트

뉴델리 아시안게임서 훌륭한성적을 올린 한국스포츠는 83년1월부터 또다시 84년 LA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강기강화훈련에 들어가게된다. LA올림픽서 제2, 제3의 崔允喜가 나타날까. 이번 뉴델리 아시안게임서 혜성처럼 나타난 金메달리스트들에게 국민들은 큰기대를 걸고있다. 전문 코치들을 통해 유망주들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들을 예비진단 한다. 【편집자註】

수영 崔允喜

지금15세、絶頂까진 3~4년…精神力 좋지만 약한몸 補強이 急先務

아시아의 인어 崔允喜는 뉴델리의 영광으로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됐다.

그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뉴델리에서 그치지않고 84년 LA올림픽, 86년 서울아시안게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귀국후 각계의 축하와 격려속에 바쁜 일과를 보내고있는 崔允喜는 내주 월요일(13일)부터는 모든 영광과 찬사를 등지고 또다시 강훈에 들어간다.

…

◇기록 대비표

	배영 1백m	배영 2백m
崔允喜	1분05초84	2분22초18
세계 기록	1분00초86 (라이니시·동독)	2분09초91 (지르히·동독)
아시아기록	1분05초34 (마에다·일본)	2분20초22 (마에다·일본)

…

【崔秉根기자】

LA올림픽蹴球 亞洲C組 예선

내년11月 홍콩서

…

프로蹴球 五輪출전

수락與否 내달결정

IOC執委서

…

金相文·田京美등 10명

印국제陸上 참가

…

스포츠短信

◆테니스협회는 10일 오후6시 신라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아시안게임 선수단 환영 「테니스人의밤」을 갖는다.

한국일보 533·2361

HoneyHome BakeShop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 TRAY
주문 받습니다.
☎ : 961—9780 MRS. 장
☎ : 536—1908(R)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8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 / Yonge / King

行材藥華中大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상하수도, 부엌, 난방, 온돌방
시설및 고장 수리.
전화 : 532-8662, 535-7878 류동훈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셀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SHERATON HOTEL
123 Queen St. W.
전화: 366-1188(R) 928-3335 김현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북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 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황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 요리사 구함.
경력 5년이상(요리사 자격증 요함)
전화 : 279-1039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캐쉬어 구함
비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좋은 사람 구함. 주유소(GAIN) 경험자는 우대함.
Full Time 또는 주말 Part Time
877 Dundas St.W(Bathurst 서쪽 300m)

한식, 일식 여자요리사 구함. 3년 경력
658½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7-0432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Single needle, Double needle, Serging 머신.
◉좋은 보수와 좋은 이익.신청: Irving Posluns, Div. of Dylex.
647 Lakeshore Blvd. West.　3층.
◉월-금 8:00AM~5:00Pm

웨이트레스와 Kitchen Helper구함. 5304 Yonge St.
(South of Finch) 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 826-7676 Koto Japanese Rest.

도넛츠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 소재
전화: 861-1521, 222-3877

개스 스테이션 풀타임 매니저 구함.
(자동차 유류판매 ONLY)
전화 : 1-852-7561

미시사가 거주 젊은 여자분 구함. 1983년 1월4일부터 7시부터 8시간. 23 Helene St. Missi Port Credit 역전. Century Burgers 희망자 방문요 5시 이후

2층에 2 Bed-room달린 식당임(Chair 24개, Stool 9개)
지하실및 화장실 2개. 맡아서 운영하실분
전화 : 691-6768 Mr. 김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Part Time 남자 헬퍼(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동쪽 끝.
전화: 282-5632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이즐링톤 × 알비온)
전화 : 743-2398

여자 룸 메이트 구함.　1 Bed-room
(베다스트와 에그링톤)
전화 : 782-9777 (오후5시반 이후)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기 타

적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적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6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성업중인 스넥-바 및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5일 영업(짧은시간)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3-4491(오후5시 이후)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Hasty Market Convenience스토아 프렌차이스 매매
년매상 : 약 $1,000,000.
전화: (416)922-7849 Ken or Gord.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 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올림픽스타디움 옆에 위치하고 관광객이 많이오는 좋은 위치.　배달이 없으며 두사람이 쉽게 운영할수 있음.
Beer, Wine 라이선스 있음.
시간: 아침9시~저녁11시. 주매상: $8,000
몬트리얼 지역: (514)256-8451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4,000불 이상, 월세가 확정된 7년 리스.
전화 : 421-1014　Mrs. 안

81년형 GMC밴트럭 17,000Km
다크 블루, 사정상 매매코자 함.
전화 : 365-0904　Mr.안

77년도 Chev. Station Wagon 8기통
65,000마일 $2,000 (성능좋음)
전화 : 288-1378　강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3,500~4,000
비데오 머신에서 월 $800~900
5887 Bathurst St.(N. of Finch)
직접 내방 바람. 빌딩도 살 수 있음.

Take-Out Pizza 가게. Amherstburg. Ont.(윈저 20분거리)
주매상 $3,000·렌트 $350(모든것 포함) 월·일 문닫음. 아스킹 $40,000/$27,000　전화: 1-519-736-7515 Mr. 정(오후8시)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플라자내에 있는 10개 스토아 매매. 1.2 Acres.
둘레 주변에 파킹장 있음. 새롭고 좋은 주택가.
1년 Gross 인컴 $64,000. 아스킹 $500,000.
1st 몰개지 $126,000. 13%. 다운 $1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M & CO. LTD.

▲FAST FOOD 비지네스.
Yonge St.에 있고. Richmond Hill 근방.
아스킹 $200,000
▲빌딩딸린 비지네스땅 $550,000
746-4360 Joe Tanzoe
Hollywood Real Estate Ltd.

Large Variety Store for Sale
4,000sq.ft. Excellent Location in ETOBICOKE
Yearly Turnover : over $800,000 + Other Icomes
from Lottery Sales, Video Machines.
Beautiful, Clean, Atractive Store.
Must be seen to be appreciated.　Private sale.
Please phone(after 10:30p.m.)　636-4338(George)
*꼭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

2 Bed Rm. 아파트 렌트
Royal York & Queen's way 근방. 월: $370
전화 : 259-1724, 251-7031

---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현재 변호사 사무실 2층 렌트합니다.
850 Sq. Ft. 484 Bloor St.W.
전화 : 638-0782

Burlington에 있는 새쇼핑 센타안에 있는 Space 렌트합니다.
버라이어티 스토아나 음식점 또는 딴 비지네스에 적합.
전화 : 233-6276 or 1-639-9255

집 매 매

디타취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먼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밍 크

밍크 털공장 직매점(Canada Mink Centre)
주소 : 712 Bloor St. W.
전화 : 535-7878, 532-8662　류동훈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 (R)　Mrs.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